

[CTC 주최] 손봉호 교수의 “다음세대 세우기”

- ▶ 일시 : 2015년 12월 8일(화), 저녁 7시
- ▶ 장소 : 삼일교회 C관 2층
(4호선 숙명여대 입구역 인근)
- ▶ 회비 : 1만원 (선입금, 현장 등록시 15,000원)
- ▶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goo.gl/9gXRqG>)
- ▶ 문의 : 안성희 실장 010-2792-5691



손봉호 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강좌

[대학원생 모임]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이번 달에는 12월 4일(금)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 ▶ 매월 첫주 금요일
- ▶ 장소 : 삼일교회 C관 2층
(4호선 숙명여대 입구역 인근)

모여서 더욱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모임 & 강좌 안내

세계관 모임 문의

TEL 02-754-8004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WORLDVIEW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성인경 목사
라브리선교회
한국 대표



김국 교수
중앙대 교수

강좌

[공동주최] 기독교세계관 학교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로보기”

기독교세계관 강좌를 한국 라브리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 ▶ 일시 : 2016년 1월 28일(목)~30일(토), 3일간
- ▶ 장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2,6호선 합정역 인근)
- ▶ 회비 : 7만원 (전체 참석, 중식 2회 제공)
저녁일정만 : 2만원
- ▶ 신청 : 온라인 신청 (12월에 오픈)
- ▶ 문의 : 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라브리 홈페이지 www.labri.kr
- ▶ 주제 및 강사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규 모임] 월드뷰리더 Reader

함께 <월드뷰>를 읽는 리더 Reader 모임을 시작합니다. 혼자만 읽기 아쉬웠던 분, 나누고픈 분은 오세요. 신년에 그 첫모임이 시작됩니다.

- ▶ 첫모임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저녁 7시 30분 (매월 첫주 목요일)
- ▶ 장소 : 와우카페 (2,4호선 사당역 인근)



인간 생명은 왜 존엄한가?

풀을 뜯는 얼룩말이나 누 무리를 사자 같은 포식자들이 공격할 때 주로 잡혀 먹는 짐승은 튼튼하고 살찐 놈이 아니다. 거의 예외 없이 어리거나 병들어서 제대로 도망칠 수 없는 놈들이 희생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리 가운데 크고 튼튼한 녀석들은 그 어느 하나도 그 약한 짐승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그 큰 무리가 한꺼번에 포식자에게 달려 들면 사자 한두 마리쯤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도망치기에만 바쁘다. 약한 것들이 제거되는 것이 종족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우생학적 본능 때문일 것이다. 같은 종류에 속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도 없고 자살하는 짐승도 없다. 역시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일 것이다. 한때 레밍(lemming)이란 쥐가 집단적으로 자살한다는 설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다.

모든 다른 포식자들을 다 제압해 버린 인류는 짐승과 달리 그런 종족 보존의 자연적 본능을 갖고 있지 않다. 약한 사람을 죽도록 방치하지도 않거니와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같은 종족, 즉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본능도 없다. 그리고 짐승이 하지 않는 자살은 오히려 많이 한다. 그래서 인류의 존속과 개인의 생명 보존은 자연적 본능이 아니라 인위적인 당위(當爲)에 의하여 보장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로 모든 사회는 종교, 전통, 풍속, 도덕, 법률 등을 통해서 살인을 금하고 자살을 만류하며 약자를 보호한다. 인간 생명의 보존은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인 '책임'에 맡겨진 것이다.

그런데 자연적 본능은 확실하고 예외가 없지만 문화는 인위적이므로 예외가 많고 확실하지도 않다. 그리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자연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므로 인간 생명의 보존뿐만 아니라 파괴까지도 그만큼 더 인위적이 된다.

그동안 인류는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뛰어난 의술과 약을 개발했고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온갖 장치와 제도를 만들었다. 댐을 막아 홍수와 가뭄을 막고 비행기, 자동차 등 교통수단과 도구들을 더욱 안전하게 제조하며,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난을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그래서 자연에 비해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훨씬 뛰어난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명 보호에는 인간이 오히려 자연보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자연재해는 2004년 인도양에서 일어난 쓰나미였는데 그때 23만여 명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300만 명이 넘고 나치 정권에 의하여 재판도 거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된다. 지금도 테러는 계속되고, 살상무기는 더 파괴적이 되며,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환경오염은 악화되며,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는 늘어나고, 살인과 자살은 줄어들지 않는다. 최근에는 낙태나 안락사까지 허용되고 있어 무수한 인명이 매일 희생되고 있다. 생명에 대한 자연의 위협에 대처하는 인간의 시도는 오히려 자연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새로 만들어 내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리적 힘이 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은 바로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다. 과거에는 모든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을 끄는 것은 금기 가운데 금기였다. 종교는 살인을 금하고 모든 사회에서 살인은 가장 끔직한 범죄였다. 법적인 처벌보다 초자연적인 보상을 더 두려워했고 사회적 제재도 매우 엄했다. 아직도 많은 사회에서 그런 전통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

그런데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종교가 세속화되며 전통이 약해지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신비감이 사라지고 살인에 대한 초자연적인 보상의 두려움도 약해지고 있다. 이제는 법적 처벌 외에는 생명을 보호할 이유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이성, 본질, 실체 등 실증될 수 없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오늘의 학문은 생명의 존엄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도무지 왜 생명은 소중하며 사람의 생명은 왜 짐승의 생명과 다른지 아무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동물 생명 보호운동은 오히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상대화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1948년 국제연합이 <보편인권선언>을 발표하여 인권존중을 보장하려 한 것처럼 오늘날 인류가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인간 생명은 존엄해!” 하고 ‘선언’하는 것 같다. 생명 존중 선언, 헌장 등이 도처에서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자신을 포함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 생명 존중을 위해 확고한 근거를 제시한다. 사르트르(J.-P. Sartre)는 “인간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야 한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이 존중될 수 있다.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원칙의 소중함을 알고 그에 충실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관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인양생명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종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학회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실무진	황정희	JnD 디자인 실장, 월간 『과학과 기술』, 계간 강원랜드 『다시, 꿈』, 『위즈플러스』, 격월간 『국악누리』 등 다수 디자인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교수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황정희 디자이너



신효영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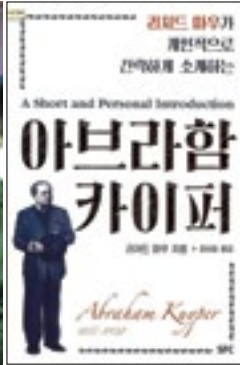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평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Contents

WORLDVIEW · DECEMBER · 2015

WORLDVIEW

2015년 12월호 WORLDVIEW 통권 186호



표지인물 방선기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다음세대, 다른세대 되지 않게_방선기 목사

- SPECIAL**
- 02 대표주간 인간 생명은 왜 존엄한가?_손봉호
 - 16 기획칼럼 자살예방은 영적 싸움이다_조성돈
 - 20 기획칼럼 보고싶은 얼굴_최현일
 - 24 기획칼럼 동성혼 논란이 교회에 던지는 도전_백은석
 - 28 기획칼럼 동성혼 시대를 향한 기독교 변증 영화_강진구
 - 32 편집인추천 함께, 더 깊고도 넓게

- COLUMN**
- 34 메디컬칼럼 Cure & Care Progeria 조로증, 早老症_최현일
 - 38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배고픔과 배아픔_김태환

- CULTURE**
- 42 땀복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일본 양심의 탄생
 - 56 성탄특집 성탄과 성탄 즈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_이승구
 - 60 문화산책 다함께 부르는 메시아_서울모테토험창단 제100회 정기연주회
 - 66 편집# 나름 다름 다움
 - 67 유머 정말 빠르네_손봉호

- BOOK REVIEW**
- 44 서평 아브라함 카이퍼_유선덕
 - 48 서평 빠름에서 바름으로_김영규
 - 52 서평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교리문답 77_이정규

- NEWS**
- 64 사무국 뉴스
 - 65 12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보조 이종원
사 진 신효영
일러스트 김규상, 신선영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페 이 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 로 그 http://cworldview.blog.me
이매저진 m.worldview.or.kr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최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신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다음세대, 다른세대 되지 않게

11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일터사명컨퍼런스 2015'가 예능교회에서 열렸다. 일터사역연합 방선기 목사님의 오프닝 메시지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일터에서 네 하나님을 보이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승욱
(이하 김) '방선기'하면 사람들은 직장사역, 가정교회, 비즈니스 미션을 떠올립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저는 현재도 있으신 일터, 이랜드 아닐까 싶습니다. 설립 시기부터 함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함께 하게 된 건지, 직장사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동기를 여쭙습니다.

방선기
(이하 방) 공과대학 졸업 후 6년 정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후 미국 리폼드신학교(RTS)에서 유학했었습니다. 유학 시절인 80년에 지금의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이화여대 앞에 두 평짜리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시작한 셈이 되었지요. 7년이 지나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잠시 두란노서원 편집부에서 일을 하다가 91년도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랜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사역은 첫 직장에서부터 꿈꾸었습니다. 직장에
서 일하면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다보니, 그리스도
인이라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
더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회식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직장 동료와의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 가
야 할지 이런 문제들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고민들을
풀어 갈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직장인의 현실과 마주
하면서 크리스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해
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직장사역연
구소가 되었지요.

93년 즈음에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직장인들을 위
한 잡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인을 대
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진행했구요, 그러다 안식년
을 맞아 폴 스티븐스(Paul Stevens, 월드뷰 2014
년 11월호, 2012년 2월호 참고)가 있는 캐나다 리젠
트신학교에서 일의 신학, 일터 영성에 대해 깊이 배
우게 되었습니다. 평신도를 잘 가르쳐도 삶으로 확
산이 되지 않는 이유를 그곳에서 알게 되었죠. 바
로 일터에 대한 목회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였
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대상으로 신학교에서 가
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양신학교를 필두로 서울신
대, 총신대, 지금은 합신대에서 직장사역론, 직장목
회론, 일상생활의 신학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
전히 미미한 반응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이
제 조금씩 직장사역이라는 것이 인식되고 있지 않
나 싶습니다.

김 ■ 크리스천 직업인들이 직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방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들 말하는 문제는 ‘윗
사람’입니다. 비단 직장만 그렇겠습니까. 어디든 그
렇지요. 이 문제는 윗사람이 된 크리스천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또 아랫사람들은 그 사
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의 정황이 그렇다
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지만, 윗사람
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는 이미 일터가 천국이라 답해 줍니다. 대부분이 그

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받아들이고 어떻
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직장을 그만둔다면, 자조
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갈 곳이 없지요.

김 ■ 지난달 11월에 ‘일터사역 컨퍼런스 2015’가 한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
용을 다루셨는지요. 일터사역이란 과연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방 ■ 직장사역은 우선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
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이전에 직장
내에서 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
다고 가르칩니다. 사역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 사역
을 직장선교라고 해서 직장 내 전도와 양육, 신우회
등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세계관부
터 다르게 일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직
장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은 큰 계기가 있어야 확산이 되는데 함께
동역하는 원용일 목사와 최영수 목사 등의 도움으로
2013년부터 일터사명컨퍼런스를 시작하여 올해로
3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인’ 대상
의 사역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사회는 교
회 중심의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
야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몇몇 교회
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김 ■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도와주나요? 직장
에서 크리스천의 사명에 대한 인식은 교회에서 먼저 이
야기가 되어야 하지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야기하고 않고 있습니다.

방 ■ 그럼에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별도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잘
준비해서 교육하고 후속 작업이 없는 것이 아쉬웠
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김동호 목사(높은뜻연
합선교회 대표)가 동안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연락
해 왔습니다. 자신은 성도를 선교지가 아닌 직장으로
파송하고 싶은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

고요. 당시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때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직업관, 성공관, 재물관, 직장생활에 필요한 직장 문화와의 갈등 해소 방법 및 윤리, 전도 등을 10주간 가르쳤어요. 이후 교회 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사역 연구소의 최영수 목사가 소명아카데미란 프로그램을, 원용일 목사가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강의와 교육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에는 정보를 덧붙힌 A(addition)단계, 사과의 폭이 넓어지는 B(broadening)단계,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C(change)단계까지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B단계만 되어도 그게 어딘가 싫어요. 지금의 우리 세대가 B(broadening)단계만 되어도 다음 세대에서 C(change)단계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마져 없다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진리는 아는데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전략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저도 지금까지 세계관 운동을 해 오며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강의와 특강들을 소개하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빌 3장), 지식과 경험, 철학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없이 왜 자기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며 비판합니다.

방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같이,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으로(고전 10장) 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이미지로 먼저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완전 다르면 위선이겠지만요. 속되게 표현하자면, 변장은 안 되지만 화장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그런 약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녹아 있음을 봅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김 변장술과 화장술이라 명쾌한 말씀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 목사님의 가정교회 이야기가 제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하시게 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방 사실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예 목회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교회를 보니 목회하려면 돈과 에너지가 건물과 회의에 너무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그런 건 못하겠다 싶었어요. 헌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예배, 기도, 교제다. 건물과 회의는 교회의 부수적인 것이다.” 저는 이 필수에는 관심이 있는데 부수적인 것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런 몇몇의 가정교회가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극장을 빌려 예배하기도 하지요.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한 계도 있고요.

김 가정교회의 한계요?

방 네, 바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에게는 또래 집단이 중요한데, 가정교회다 보니 그 또래 집단이 구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가정교회가 모여 함께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나눔과 교제, 공동체에 있어서는 유익이 큰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다음세대를 위해서는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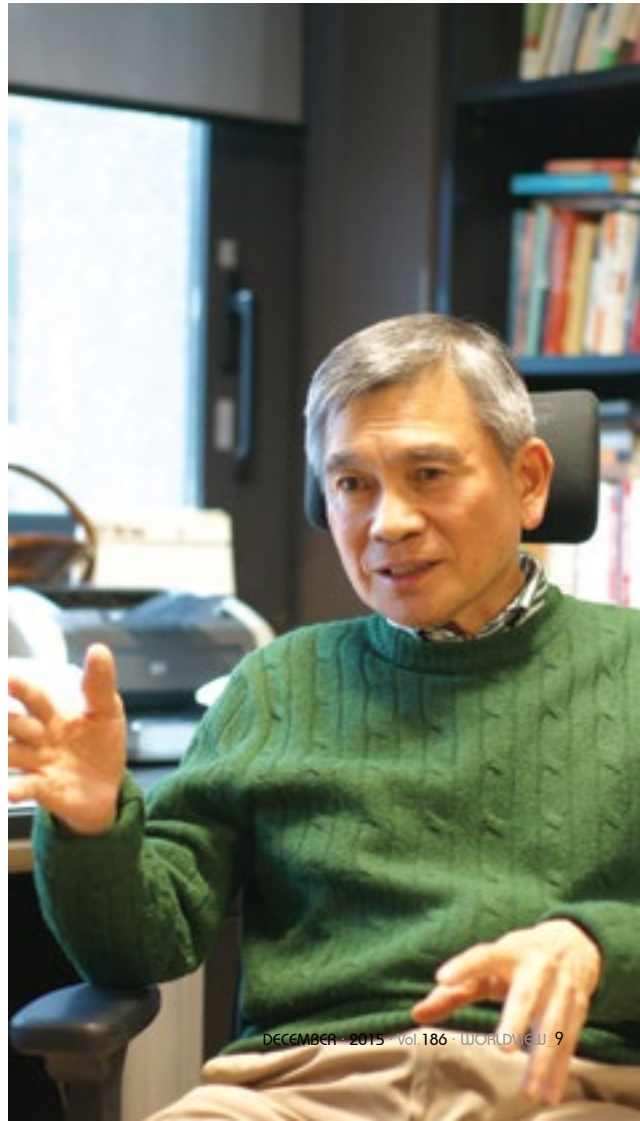
김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해야지 왜 교회에 자녀교육을 맡기는지 말입니다.

방 두 가지 면에서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사춘기에 들어선 청소년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는 부모 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역할이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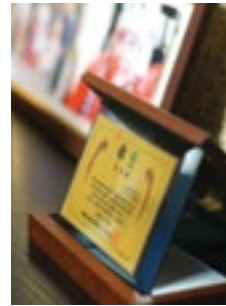
하지만 교회 내의 주일학교 시스템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지금껏 가르쳤음에도 될까 말까인데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학교에서 만난다고 교육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학교 시스템이 아니라 공동체 교육이 더 중요해요. 애매모호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례를 들면 공동체 교육을 위해 저희는 수련회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평일에는 비어 있고 주일에는 꼭 차지만, 수양관은 주일에 비어 있어 어디든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수련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함께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교육의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 가정교회가 수련회를 통해 모이고, 청소년들은 그 속에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각양각색의 세대가 모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아주 오랫동안, 한 기업의 사목이십니다. 과연 기독교인 기업, 기독교 기업이 될까요.

방 회사가 잘될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죠. 회사에서 예배를 하면 축복을 받아 무조건 잘될 줄 알아요. 그건 일종의 기복신앙이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기업은 돈, 일, 사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랜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부를 했어요. 기부, 그런데 돈만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쓴 부분이 바로 기업의 정신인 '정직'입니다. 그리고 점차 회사가 커지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기업이라면 돈을 가치있게 벌고, 일은 정직하게 하고,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점점 커질수록 지키기 어려워지죠. 그래도 이 정신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회사가 커지다 보니 상당히 이상적인 기준으로 비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팽창하거나 그로 인해 생기는 허점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이론적인 관점에서 공격을 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기업이 되려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원칙과 이론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의 이야기도 들어 봐야 합니다. 기독교 기업을 이루어 가는데 희생이 있어요. 그 과정이 아주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도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난 받을 정도는 아닌데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우리의 '괜찮은' 수준도 포기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 ■ 기독교 기업이라는 것이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회사는 없지요. 저도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기업관 강의를 할 때 매번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간을 돌린다고 한다면 다시 이곳에서 일할 거냐고요. 그러면 15%만 그렇다고 답합니다.

방 ■ 성경적으로 경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완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 ■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공관을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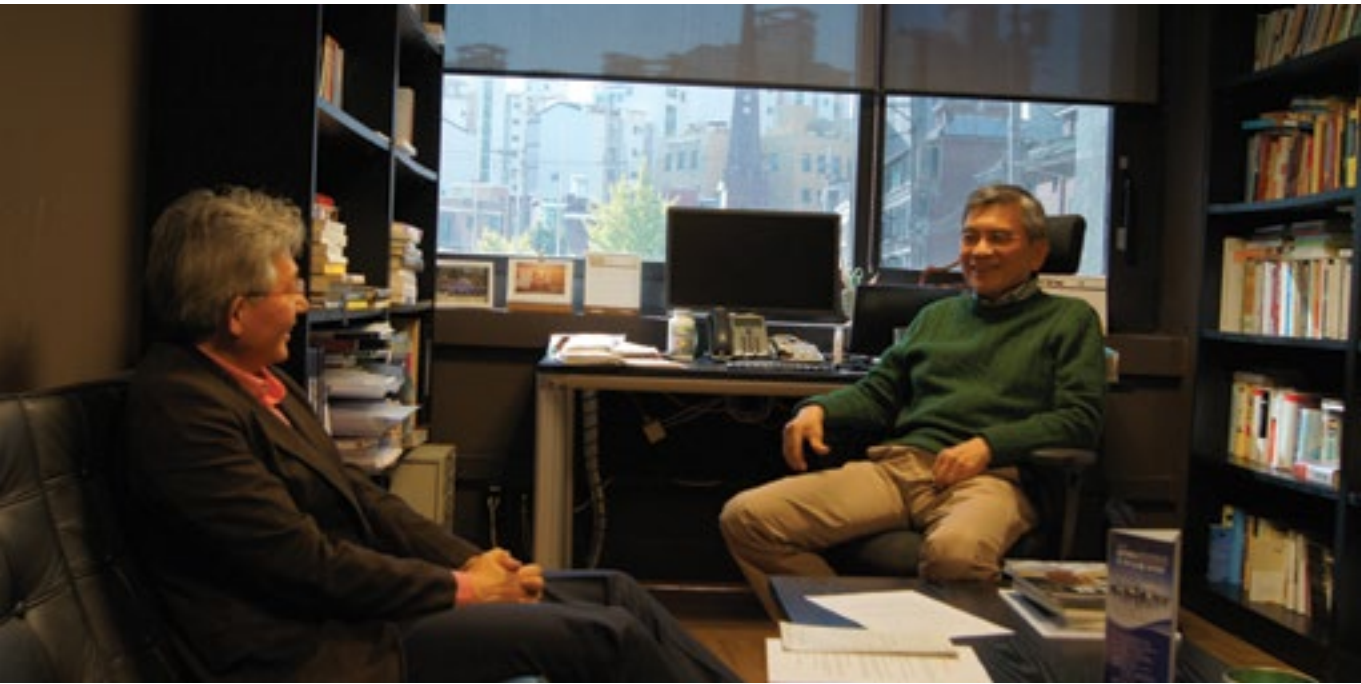
방 ■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러면 역설적으로 크리스천이 부나 성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만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부를 누리게 하실 능력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모두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 ■ 기업관과 같은 맥락에서 직업윤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 ■ 직업윤리, 사실 정직이 최우선이지요. 그런데 곧 이공대로 하면 망하더라도요. 현실을 배제한 이상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타협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감이 없는 것이고, 굳이 표현하면 '옆집보다는 깨끗하게 어제보다는 깨끗하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거든요. 윤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옆집보다는 낫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 ■ 그렇다면 성경적 직업관이 무엇일까요. 내년부터 <월드뷰>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수인 루터의 직업관이 각계에서 회자되고 있고요. 루터가 지금의 한국 사회,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무엇이 문제라 할까요?

방 ■ 루터의 소명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의 성숙이,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직업의 성숙은 모두가 많



이 말하잖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기록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했을 때 강조해야 할 부분은 일의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청년 실업도 해소할 수 있어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 입맛에 맞는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합니다. 흔히들 요셉과 다윗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총리대신으로 왕으로 살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스스로가 그런 자리를 바라며 살지 않았고요. 그들은 매순간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 생각하며 성심을 다하고 성의를 다 했어요. '내가 앞으로 나간다'는 진로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 고민하게 되고, 부르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의와 성실을 다하면 그걸 통해서 분명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

십니다. 다윗이나 요셉처럼 장래에 또 다른 소명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지금 주신 일을 감사하며 수행해야 합니다.

김 정부에서 이를 심각히 여기고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업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 사실 취업문제가 심각하다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취업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을 해 봐야 또 이직해요. 일이 맘에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교육정책 때문에 생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학생들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냐, 내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일자리 정책보다 먼저는 대학의 정원이 줄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일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서로가 동역하는 것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명관은 개개인이 풀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구조적인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사역, 다음세대를 강조하고 계신데 다음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 ■ 오늘의 청년들은 기업을 해 보려고 시도하질 않아요. 위험요소가 크니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위험을 전제하고 각오하는 것,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1순위가 공무원 혹은 교사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무조건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잘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도 부족한데 위험이 가늠도, 감당도 되지 않으니까 시도조차 안하는 거죠. 오늘날 청년들이 추구하는 것이 도전이 아닌 안정입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 감당하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직장으로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을 안하려고 하면서 사실 자신의 청년 시절을 담보로 가장 큰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자긍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못한다는 마음으로 지레 포기하는 다음세대를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

음세대인 청년들을 세우는 훈련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공동체를 통해 훈련하는 것이 은퇴 후의 나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찬란한 캠퍼스 사역 부흥기의 혜택을 받은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에는 어떤 이야기와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을지, 선교단체가 생존에 급급하여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오늘, 지금은 다음세대를 위한 또 다른 사역을 꿈꿉니다.



김 ■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



방선기는 생활신학, 직장사역, 문서사역, 가정 교회, 평신도 운동, 기독교 교육 등 한국 교계의 '틈'에 서서, 그 틈을 겸손하고 일관된 실천으로 메워온 특이한 목회자이자 성경교사, 강연가, 신앙운동가이다. 종교적 감성은 풍부하지만 종교적 깨달음과 적용이 모호한 우리 교계 풍토에서 그가 소개하고 일으킨 솔한 운동들은 많은 신앙인들의 영적 개명과 안락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가정 교회인 '은혜와영광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랜드 사목으로 활동하고 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직장사역론, 직장목회론, 일상생활의 신학, 설교 준비와 성경공부 워크숍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를 거쳐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 《그리스도인의 일상다반사》, 《쉬운 기독교 값진 은혜》, 《대중문화도 기록해질 수 있는가?》, 《5분의 축복》 등이 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

소개합니다!

직장사역연합

직장사역연합(대표 : 방선기 목사)은 한국 교회에 흠어진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일터사역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역 연합체이다. 1993년 직장사역연구소, 2003년에 사목을 파송하여 기업을 섬기는 CS네트워크, 2005년에 직장사역을 교회와 신학교, 기업에 훈련으로 적용하는 직장사역훈련센터가 설립되어 동역하며 일터사역의 시너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직장사역연합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주요한 사역은

(1) 일터사명컨퍼런스, (2) 소명아카데미, (3) 일터사역학교 강사 워크숍 등이 있다.

일터사명컨퍼런스는 2013년부터 열기 시작하여 올해 3회 대회를 연 모임으로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주제로 교회들이 일터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사회를 조직하여 순회방식으로 열고 있다. 2013년에 선한목자교회, 2014년에 온누리교회에 이어 2015년에는 예능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다. 내년에는 부천 온세계교회에서 4회 컨퍼런스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일터사명컨퍼런스에는 일터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크리스천 기업인, 직업인 성도, 신우회원 등 일터사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 참석자들은 일터사역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일터사역의 사명에 공감하고 일터사역의 구체적 전략을 공유하여 한국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모색하고 있다. 일터사역을 하는 기관들이 준비하는 부스를 통해서도 유익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소명아카데미는 주일과 평일의 간격 있는 삶의 고민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여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소명아카데미는 12강좌를 2단계로 나누어서 6주 동안 소명편, 이후 6주 동안 비전편을 훈련한다. 소명편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문화관, 성경적 대인관계,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자기 관리 등이다. 수련회 및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일터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높은뜻교회연합의 교회들, 선한목자교회, 지구촌교회, 일산동안교회, 충신교회, 할렐루야교회 등 전국 100여 개 교회에서 시행했고 전후반기 20여 교회들이 진행하고 있다. 청년 소명아카데미와 청소년 소명아카데미도 연령에 맞게 조정된 일터사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직장사역훈련센터에서는 일터사역 목회자훈련학교를 각 신학교(장신, 충신, 대신, 합신, 영산신, 한세대 등)에서 1,2단계로 열고 있다. 목회자훈련학교 과정을 수료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일터사역의 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사역연구소에서는 일터사역자들을 위한 자료집으로 월간 <직장사역>(자료 CD 포함)을 발간하고 있으며 일터사역 학교 자료세트를 통해 크리스천 직업인들을 세상 속 사역자로 세워주는 강사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교회(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장년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요셉 비전 학교>, <크리스천 직업 준비 학교>, <크리스천 성공 학교>, <청년 5M 훈련 학교>, <다니엘 일터선교사 학교> 등이 있고 직장신우회와 크리스천 기업을 위해서도 <크리스천 직장생활 학교>, <크리스천 책임 학교>, <룻기 일상생활 학교> 등이 있다. 정기적으로 강사 워크숍을 열어 책과 워크북, 자료 CD와 동영상 강의 CD를 제공하며 사역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철학과 신학의 모택 주

이영진
지음

A5변형
280면
26,000원

니체
프로이트
하이데거
쇼생크
라캉
데리다

아퀴나스·아퀴나스
데카르트
칸트
헤겔
다윈
마르크스

만들어진
신의
기원에
관하여

아퀴나스에서 데리다까지,
흥미진진한 영화와 함께 추적하는 로고스의 실체

〈레 미제라블〉로 풀어보는 헤겔의 신, 합리성,
〈매트릭스〉로 풀어보는 마르크스의 신, 물질,
〈쇼생크 탈출〉로 풀어보는 니체의 신, 허무...

“이 책을 읽고 나면 근현대 서구 사상사를 바꿔 놓았던 이들로부터 로고스,
즉 참신(true God)이 어떻게 도전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http://www.hsbooks.com>

WORLDVIEW SPECTAT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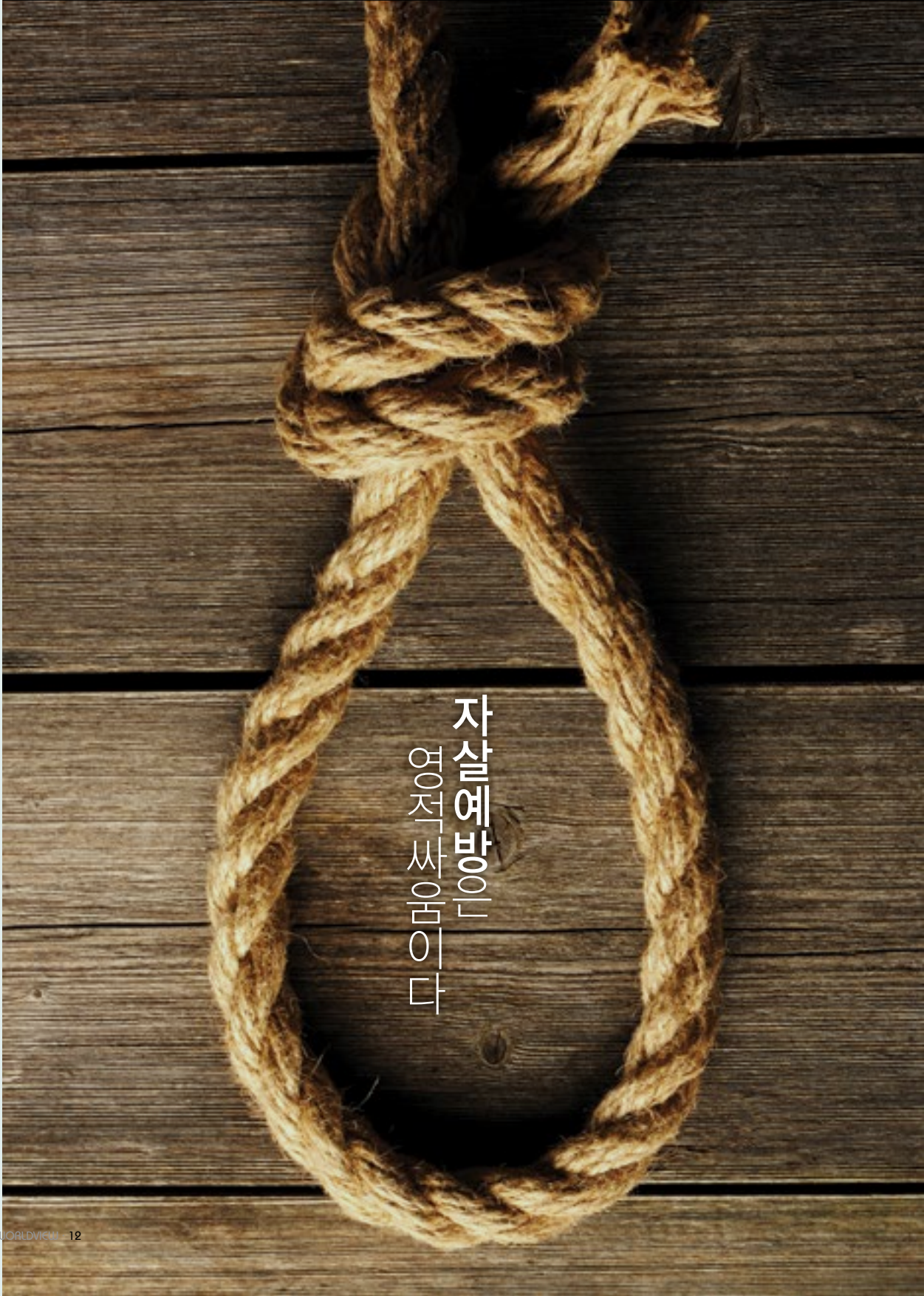
생명

살아 있다는 것은
호흡이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존재라는 말이
그저 있음이 다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오늘이 아닌 다음을,
마침이 아닌 이어짐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좋고 싫은 취향의 문제가 아닌
다음의 이야기도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다음을 기대하고 기약하며
안전하지 않아서 문을, 다 알지 못해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자살예방이
영적싸움이다

1만 3836명. 이것이 작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수이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죽었다. 자살은 대한민국 사망 원인 4위이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자살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 뒤를 폐렴과 당뇨병 등이 있고, 그 뒤를 호흡기질환, 간질환, 운수사고, 고혈압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질병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사망 원인 4위라는 것은 이 사회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회에 자살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폐렴이나 당뇨병, 간질환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약이 개발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예방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심지어 TV에서도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또는 이러한 병에서 나기 위해 어떠한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수시로 나온다. 그런데 이런 질병보다 자살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도 예방이나 치유에 대한 안내가 별로 없다. 이것은 정부나 이 사회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언론에서 유명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은 반짝 관심을 보인다. 또는 어린 청소년들의 자살에 마음 아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관심은 대부분 순간적이다. 그냥 우리의 감정을 쓸고 가는 동정일 뿐이다. 이러한 일들에 각성하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작년에 청소년 의식조사를 한 언론사와 함께 진행한 적이 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약 30%가량이 그

렇다고 답했다. 단지 지난 1년 동안 말이다. 다시 그 아이들에게 물었다.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말이다. 그랬더니 평균 4번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거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죽음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도 지난 1년 동안 자살의 유혹에 빠졌다고 27%나 응답했다.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터부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배워 온 것에 의해 사람들은 자살은 죄악이고 부모와 가족들에게 잘못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다. 바로 이러한 윤리의식과 바른 가치관이 사람들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청소년의 때에 이미 이렇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미 죽음의 장벽을 한 번 넘은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터부시 되는 그 장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결론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거나 학교나 교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하면 마치 자살을 불러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데 자살은 사망 원인 4위이다. 결코 우리 주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필자가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LifeHope에 교육의뢰 공무원이 들어 왔는데 첨부된 자료를 보니 경기도에서 학생이 자살했거나 시도했던 학교가 65개교나 되었다. 모두가 쉬쉬하지만 자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백치와 같이 모른 척한다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이며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이다. 현재 굿미션네트워크 이사이자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장 및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월드뷰 편집위원 등으로 섬기고 있다. 독일의 쾰른대학교(Th.M.)와 마르부르크대학교(Th.D.)에서 수학하였으며, 저서로는 「목회사회학, 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등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공동체 가운데 자살을 맞이하는 것이다. 바로 어제도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전에 자살과 관련된 특강을 들었던 분이다. 교회 중고등부에서 자살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털어놓는데 얼마 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혼란 가운데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했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교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나냐는 것이다. 이미 장례는 시작되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작년에 예장통합 교단에서 '자살에 대한 목회지침서'를 통과시켰다. 한국 교단에서는 첫 시도였다. 필자도 위원장으로 참여했는데 내용은 자살에 대한 현황이나 이해, 그리고 자살의 의도를 가진 자들을 돕는 방법 등이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살자의 장례예식서와 설교문이다. 장신대에서 예배설교학을 가

르치는 김경진 교수의 수고로 '신자의 자살로 그 사실이 알려진 경우', '신자의 자살로 그 사실이 안 알려진 경우' 그리고 '불신자 자살의 경우' 등 상황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족 예배예식서도 포함하고 있어 가족들이 추모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이 예식서는 무엇보다 자살자에 대한 장례를 총회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문서이다. 자살에 대한 교계의 입장이 진일보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은 올해 세계자살예방의 날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받았다.

자살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10년 동안 부동의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에 있는 일본이나 헝가리의 자살률이 20명 정도라면 우리는 30명 수준으로 그 격차도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자살이 많은 나라였을까.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까지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위 IMF 사태 이후 자살률이 치솟기 시작했다. 그것이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라 30명에 이른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분명 계기가 있었던 것이다.

IMF 사태 이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경제중심주의다. 돈이 우리 삶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생애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 심지어 가정도 그 밑바닥에 돈이 자리하게 되었고, 대학도 어느덧 취업학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교회마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았으니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가치관에서는 돈이 없으면 이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없고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만다. 기계같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가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40대와 50대 남성들의 자살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 40대와 50대이다.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자살률이 높다. 그런데 이 연령대에 이르면 3배에 이른다. 왜 이 시기의 남성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일까. 물론 이들이 죽는 이유를 어느 하나로 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돈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연령대의 남성들은 삶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때려치우거나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명퇴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 소규모 창업의 경우 1년 이내에 50%가 망하고, 3년이 지나면 80%가 망한다고 한다. 그러니 대부분 망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때 실패한 이들을 가정이 품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많은 남성들이 인생의 가장 빛나야 할 그 시기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자살률을 낮추는 것은 이러한 가치관을 내려놓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문화의 문제이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가치관, 즉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자살을 예방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나서서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자살예방운동이다.

모든 교회가 이 생명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특히 소그룹 리더들이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배운다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생명보듬 교육을 위해 교회를 방문해 보면 특



별한 일들이 일어난다. 먼저 모인 인원을 보고 대부분의 담임목사들이 놀란다. 교인들이 자살이란 주제에 이렇게 모일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신들이 먼저 죽음의 고비를 넘어 보았다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자신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생명보듬 교육을 받고 자신도 살 길을 찾고 싶고, 주변의 그러한 사람도 돕고 싶다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이들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생명의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 이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나누는 순간 그 주변에서 생명의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내 주변에는 이러한 간증을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심지어 SNS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바로 이러한 것이 생명문화이고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생명의 문화가 이 땅에 확산되어 간다면 대한민국의 자살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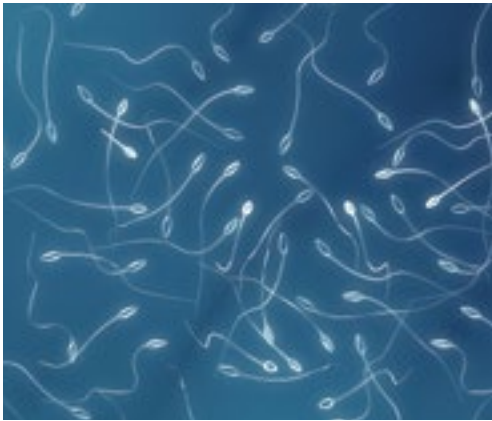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연재합니다.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2015.11.7일자)



보고
싶은
얼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나는 이제 수정된 지 이틀 되었다. 처음엔 하나였던 내 세포는 이제 세 개 네 개의 살아 숨 쉬는 세포가 되었다. 앞으로도 초당 수 만개 이상의 세포들이 내 몸을 채워갈 것이다. 이제야 알겠다. 이곳은 엄마의 자궁 옆에 붙어있는 나팔관 속이다. 나는 이곳에서 약 일주일 동안 앞으로 내 평생을 살아갈 유전 지도와 몸의 각 기관들을 만드는 줄기세포들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지금 아주 초기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오기에도 수많은 난관과 역경이 있었다. 나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이 세상에 나의 유전적 특징과 표현형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인데, 확률적으로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나서 내가 되는 것은 정말로 바닷가 모래알을 찾는 것과 같다. 여자의 난자가 될 수 있는 약 사백 만개의 난모 세포 중에서 하나의 난자와 수천 만개 이상의 정자 중의 하나가 만나서 내가 되는 것이니 그 확률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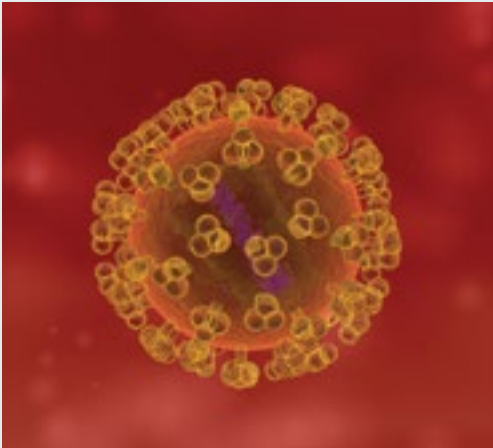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위원장을 지냈다.

만났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부터가 진정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드라마의 첫 편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란을 zygote라고 명명하였는데 그 뜻은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다’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남녀가 하나 되어 생긴 새 생명의 의미가 삶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지혜롭고 소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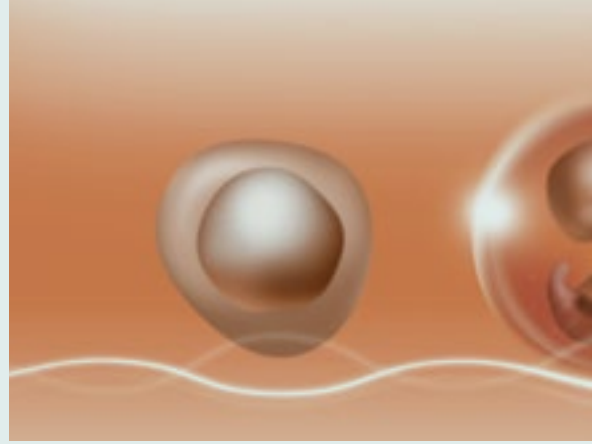
지금부터 새 생명은 약 4cm 정도의 나팔관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이 여정을 끝내고도 궁극적 목적지인 자궁 안에 잘 착상해야 하는 험난한 코스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약 30% 정도는 착상에 실패하여 영영 사라져 버리는 운명에 처한다. 참으로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나팔관의 여정 도중에 어떤 원인에 의해 새 생명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대량의 출혈을 야기하는 자궁의 임신이 유발될 수 있다. 삶의 여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초기의 어려움은 연약한 새 생명에게는 치명적이다.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치고 목적지인 자궁내막을 향해 가던 길을 가야한다.



이제 수정된 새 생명은 일주일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난관이 남아 있다. 바로 자궁에 정착을 하는 것이다.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들과 각 세포의 역할을 수행할 유전자배열의 기본기를 완성하였다. 이제는 앞으로 열 달 동안 이 곳에서 삶의 여정을 가꾸어 갈 몸과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겹겹이 싸여 있는 자궁내막의 세포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많은 새 생명이 착상에 실패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어떻게 착상을 하는가에 관한 사람들의 많은 학설이 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나도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냥 나는 나에게 입력된 창조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나는 생명체로서 안정적인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 착상에 성공하였지만 강력한 엄마 면역체계의 혹독한 면접을 견뎌내야 한다. 우리 몸은 나와 다른 세포나 단백질 등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체계가 다르면 강력하게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 '나'인 것만 용납하고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척하는 몸의 특징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은 "면역체계"라고 부른다. 사실 새 생명인 나는 받은 아버지의 몸이고 받은 어머니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나는 일종의 '내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상시 같으면 나는 벌써 어머니의 면역체계에 의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몸에 나와 같은 수정된 새 생명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아닌 것'을 '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과정을 통해 면역체계의 일시적인 체제개편이 이루어져 새 생명에 대해서는 '나'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또 한번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세상의 빛을 보기도 한 참전인데, 이렇게 고비가 많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제 면역체계의 끈끄러운 면접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성장'과 '분화'라는 것을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였다. 그래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각각 몸의 역할에 따라 성장하고 분화해야 한다. 전체가 기능하기 위해서 부분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생겨야 하는 것은 피와 관련된 것이다. 심장과 혈관 그리고 피가 생겨나야 한다. 대개 이 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임신 확진이 된다. 그리고 최초의 심장박동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외부세계에 내가 살아 있음을 자랑스럽게 알려주게 된다.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심장은 이제 평생 동안 내 삶의 중심에서 늘 뛰고 있을 것이다.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몸의 다른 기관들은 심장이 보내주는 피를 통하여 평생을 살아갈 기관을 만들어 나간다. 조금만 지나면 1cm도 안되는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제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온다.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이 세상에는 우리 같이 어여쁜 새 생명을 반기워하지 않고 새 생명 친구들을 무참하게 없애 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이른 시기에 생물에 손을 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지금 나와 같이 심장이 생기고 얼마 되지 않은 생명들이 주된 대상이라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참으로 외면하고 싶은 소식이지만 현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나와 같은 새 생명을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낙태는 2010년 통계 기준으로 OECD회원국 중 출생아 대비 최고라고 한다. 지금도 한해에 약 20만명의 새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 통계가 작성되던 2010년도에 출생한 생명이 47만명인데, 출생아의 절반에 가까운 새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삶의 아

주 초기에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며 생명을 지켰을 우리 같은 새 생명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닐 수 없다. 나팔관 속의 외로운 전진, 힘겨운 착상의 여정, 혹독한 면역체계의 시련을 견디고 이제 아름답게 자라나야 하는 시기인데, 수많은 새 생명 친구들이 사라져 가야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몸의 크기가 자라야 하고, 신경조직과 운동조직이 역할을 시작해야 하며, 소화기관이 활동하여 대사과정이 안정화 되어야 한다. 오감이 발달하여 외부의 소리도 듣고 반응도 할 수 있다. 내 손가락을 빨기도 하며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를 먹는 꿈도 꾸어본다. 점점 배가 불러와 누가 보아도 내가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외부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움직인다. 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나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나고 묻지 않아도 나는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고, 내 몸이 일정한 상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작동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대사과정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세대를 이어갈 방법들도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보는 날, 나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일어나야 했던 수많은 연속적인 창조 단계들 속에서 누렸던 감격들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마음에 심겨진 보석 같은 섭리의 손길들을 간직하고 살아갈 것이다. 아! 이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어떤 테러보다도 강력하고 조용하게 우리의 새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의 탈취자들을 현상수배하고 싶다. 그 어두운 거짓 문화의 몽타주를 뿌리고 싶다. 그래서 사라져간 사랑하는 내 친구, 또 다른 새 생명의 얼굴을 보고 싶다. 

“동성혼” 논란이 교회에 던지는 도전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이슈가 공론화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동성애자 차별금지 입법을 두고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시점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관련 판결이 나왔다. 동성 간의 결혼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국내에서도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라는 요구가 법원을 통해 제기되는 등 논란의 초점이 동성혼 이슈와 사법부로 옮겨 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한국 교회의 반응은 방향성과 방법론에 있어 기존 동성애 반대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동성애 이슈의 연장선상에서만 동성혼을 이해·접근한다면 사안의 본질적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다.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중추적 연결 고리이기에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이룰 뿐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남녀 간의 결혼을 제정·수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비취 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동성혼을 무게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세상과 문화를 향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동성혼 합법화 논란이 교회에 던지는 기독교 가치관적 도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나마 문제를 제기하며 그리스도인의 자기반성적 실천과제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최근 동성혼 논란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 Obergefell v. Hodges 사건의 판결문(2015.6.26. 선고; 이하 “Obergefell”)을 중심으로 동성혼 이슈가 교회에 어떠한 기독교 가치관적 도전을 던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9명의 대법관들이 4:4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결정적 한 표를 던졌던 케네디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을 보면, 동성결합에도 남녀 간의 결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는 주장의 공통된 이론적 근거를 알 수 있는데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주의적 자율성 혹은 자유권이다.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강요될 수 없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도 자기결정권의 행사이며 자기정의(self-definition)의 영역이요 개인적 자유의 문제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율성과 자유의 침해요 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는 주장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2003년 Lawrence v. Texas 사건 판례에서 남성 간의 성교를 포함하여 동의에 의한 성인의 사적 성행위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이슈이며 누구와 어떤 성행위를 하든지 이는 개인의 사적 자율·자유권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Obergefell 사건의 다수의견에서는 이러한 남성 간의 성적 행위라는 사안에 적용했던 이론적 근거를 원용하여 동성혼도 헌법적 기본권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 동성혼 합법화 주장은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적 자율 혹은 자유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이런 주장이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묵직한 기독교 가치관적 도전을 알아야 하겠다.

서양정치(도덕)사상사는 개인의 자율과 자유의 개념이 기독교 가치에서 연원했음을 보여 준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정신에 잘 드러나 있듯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매개자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앞에 독립된 개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하여 가톨릭교회(종교적 권위)와 국가(정치적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했으며 말씀에 기초한 신앙적 양심에 따른 행위를 자율로 이해했다. 자유와 자율은 이렇듯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개인의 자아를 철저히 종속시키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계몽주의시대에 시작된 가치관적 변화가 1950-60년대의 성혁명기를 거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자유와 자율의 가치가 자아 우상화와 개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이는 동성혼 이슈가 교회에 제기하는 가치관적 도전의 일면이라 하겠다.

둘째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존엄적 가치이다.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특수한 결합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친밀함과 관계의 극치는 당사자들에게 존엄적 가치의 새로운 차원을 누리게 하는데, 이러한 가치를 동성커플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혼 관계의 특수성은 두 사람의 결합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남자와 여자가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불완전한 구성원 개인을 초월하는 연합을 이루기 때문일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에서는 추구할 수 없는 심오하고 신비로운 차원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기독교 가치관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존엄과 부패성을 동시에 지적하면서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성은 스스로 존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통해 궁극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형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백은석 서울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보스턴대학교 및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며 2005년부터 한동대학교 법학부와 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서 영미헌법, 정치철학, 기독교법사상 등을 가르치고 있다.

통한 창조·구속·회복의 역사를 통해 인간에게 부여하는 만큼의 가치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결혼도 그 결합 자체에서 존엄이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결혼제도를 제정·수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성취 여부에 따라 그분이 개별적으로 평가하실 영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자아 성취적 가치 실현의 방편으로 결혼을 이해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곧 동성혼이 교회에 던지는 또 하나의 기독교 가치관적 도전이라 하겠다.

셋째는 동성결합으로 형성되는 가정이 보호받을 권리이다. 특히 동성 커플이 양육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동성결합도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네디 대법관은 Obergefell 다수의견에서 많은 아동들이 동성가정에 입양되어 따뜻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속한 가정이 이성가정보다 못하다는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고 결혼 자체를 무효화한 적은 없었다면서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동성결합을 결혼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성적불능이나 자녀생산의사에 관한 기만은 결혼을 무효화 할 수 있는(voidable) 법적 근거가 되었다. 동성결합이 아닌 남녀 간의 결합을 아동의 권익과 보호 등을 얘기하면서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동성결합을 결혼 개념의 중심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기도 하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기억한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어렵고도 긴 과정을 거치며 깊이 묻어 두신 복을 알아 가며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세워 가는 것이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동성결합은 결혼제도를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거스르는 인간의 도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동성혼은 사회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기에 때문에, 교회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그 위협성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출산과 양육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 소명과 축복으

로 받아 감당해야 하는 실천적 도전을 대하고 있음도 알아야 하겠다.

넷째, 결혼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기에 공공성을 지닌 제도이며, 따라서 결혼을 서약한 동성커플에게도 사회와 국가는 공적으로 “상징적 승인과 물질적 혜택(symbolic recognition and material benefits)”의 제공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혼이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는 공적 제도로 여겨지는 이유는, 결혼이 가정을 이루고 부모는 다음 세대를 생산·양육하며 자녀는 성장하여 연로한 이전 세대를 부양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맡아 왔기 때문일 것이다. 동성혼은 생물학적으로도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성혼에 대한 승인과 혜택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케네디 대법관은 종교적 이유에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사적” 견해를 법과 제도의 기초로 삼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동성혼 이슈가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직접적인 도전이라 하겠다. 성경적 결혼관을 견지하는 교회가 동성혼의 사회·국가적 위험을 지적하며 공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사적 견해에 의한 동성애자 비하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기까지 한다. 교회가 신앙양심에 따라 동성혼에 대한 공적인 승인과 혜택의 의무를 거부할 경우 종교의 자유는 보장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이유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평등권이다. 동성 커플들이 직면해 온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의 결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거 소수인종과 여성을 차별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더하여 소수인종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반영되었던 결혼관련 법제도들이 시대를 지나며 개혁되어 왔듯이, 이성 간의 결혼을 전제한 결혼관 자체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며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도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 차별적인 결혼


관, 인종 차별적인 결혼제도는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뀌어 왔다. 선천적인 성별과 인종에 근거한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의 선천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사안일 뿐 아니라, 자녀생산과 양육을 통해 결혼이 수행하는 사회/국가적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동성혼은 남녀 간의 결혼과 동일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평등권의 침해일 수 없다고 하겠다. 2000년대 초 네덜란드가 최초로 동성혼을 인정하기 전까지 기나긴 혼인법제도 변천사를 통틀어 결혼을 남녀 간의 연합 이외의 것으로 규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결혼의 본질이 시대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혼의 본질적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사안은 동성혼 논란의 핵심이다. 소수의견은 케네디 대법관의 다수의견이 이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소수의견도 지적하고 있다. 케네디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이 핵심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동성혼 논란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도전의 중심에도 결혼제도의 제정·수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동성혼 합법화 주장의 모든 이론적 근거에는 특정결혼관이 전제되어 있다. 성적 욕구와 정서적 필요를 지닌 한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의 충족을 위해 그러한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는 동안 다른 개인과 지속하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적 관계라는 견해 말이다. 이러한 결혼관이 성경적 결혼관으로부터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교회는 동성혼 논란의 본질적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희생적 타자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한 자기희생적 사랑을 알아 가라고 하시는 결혼제도,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이지만, 가정 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에 근거한 권위의 질서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의 백성과 교회로

만들고자 하시는 결혼제도, 부모 세대가 자녀를 낳아 기르며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 세대로 이어가라고 정하신 결혼제도, 가정과 가족 안에서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연로해진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가 부양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맛보라고 만드신 결혼제도-결혼의 본질을 제도의 제정·수보자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동성혼 논란은 교회에게 동성혼 반대와 사회법 변혁으로의 실천적 도전과 더불어 강력한 자기반성적 도전을 던진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계와 가정은 어떠한지?”, “그리스도인들도 실질적으로 결혼을 자신의 필요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이해하며 배우자와 가족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 출산·양육을 과연 소명과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받아 감당하고 있는지?” 등등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 삶을 위한 자기점검과 자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경적 원리와 사회법제도와와의 관계는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론적 과제이다. 동성혼 이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회가 씨름해야 할 다른 많은 이슈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를 향해 던지는 기독교 가치관적·실천적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향한 도덕적 우월성에 근거한 혐오감이나 동성혼이 초래할 사회·국가적 파장에 대한 위기감이 교회의 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에 관한 공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인애의 도구가 되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어떠한 사단의 역사와 인간간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고 계시며 교회를 보전하시고 궁극에는 창조세계를 회복시키심을 믿기 때문이다. 

동성혼 시대를 향한 기독교 변증 영화 제이콥 카인드버그 감독의 '싱 오버 미'



동성애자 찬양가수의 변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귀에 익숙한 찬양곡 '약할 때 강함 되시네'는 언제 들어도 기독교인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한(요1:36) 세례 요한의 고백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고백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옴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노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가수 데니스 저니건(Dennis Jernigan)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의 고백을 담은 영화 <싱 오버 미>(Sing over me)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영화 <싱 오버 미>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로 살아왔던 데니스 저니건의 신앙적 갈등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다. 마치 무

용담처럼 어두운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빛나는 행복을 이뤘다는 간증형식의 여느 다큐멘터리 영화와는 다르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비판을 쏟아내기 보다는 주인공이 보여주는 진솔한 고백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기독교인이라면 동성애로부터 돌이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까닭에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도 감동받고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는 유명 찬양사역자의 다큐답게 그가 부른 찬양을 배경음악 삼아 그의 과거를 비추며 현재의 고백을 담았다. 어린 시절의 사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부모님과의 인터뷰와 그의 절친 적이 말하는 저니건에 대한 언급 사이사이로 부모와 친구가 몰랐던 저니건의 동성애에 대한 고백이 이어진다.

다섯 살 나이에 공중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나타난 성인 남자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청소년시절 여자아이 같다는 놀림을 피하기 위해 여자 친구에게 키스했지만 전혀 이성의 느낌을 받지 못한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동성애자들의 과거와 비슷하다. 그러나 저니건은 하나님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만드셨으니 난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식의 동성애에 대한 자기정당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화를 모색해왔다는 점에서 동성애를 속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다큐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독한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의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동성애가 유전적 혹은 선천적인 까닭에 동성애에 대한 책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려는 동성애 속명론자들의 의견이 틀렸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왜곡된 이해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 속명론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는 후천적이며 사회적 학습에 따른 경향이 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모든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만일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동성애자 쌍둥이는 함께 동성애자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싱 오버 미>는 데니스 저니건을 통해 동성애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왜곡된 성적 경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성혼을 주장하는 시대의 문화변증

<싱 오버 미>는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적취향으로 인정하려는 현대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싱 오버 미>가 기독교 동성애자

들을 향한 최고의 기독교 변증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현대의 세속적이며 상대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프란시스 웨퍼는 기독교 문화의 변증학적 성격을 강조한 바 있다. '변증학(Apologetics)'이란 일종의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웨퍼는 '변증학'의 목적을 방어(defense)와 전달(communication)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방어의 비기독교 혹은 반기독교적 메시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논증적 방어를 뜻한다. 그러나 웨퍼는 그의 다양한 저술과 강연, 그의 아들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던 프랭키 웨퍼를 통한 영화제작활동이 의미하듯이 방어보다 전달에 관심이 많았다. 즉 그는 어떤 특정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독교를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 때 영화 <싱 오버 미>야말로 오늘날 영화세대에게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전달하는 훌륭한 문화변증의 실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싱 오버 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은 교회안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고 산다는 점이다. 저니건 역시 성인이 된 이후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죄의식에 휩싸이는 한편으로 동성을 갈구하는 육체의 정욕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았음을 고백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5:17)는 성경말씀은 그를 두고 하는 말이다.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카데미 운영위원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찾아간 교회의 도움은 없었고 오히려 교회 목회자는 자신을 탐하는 또 다른 동성애자였음을 알고 기겁할 수밖에 없는 과거 상황묘사에 관객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동성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교회는 딱 두부류로 나뉘어졌다. 동성애에 대한 신랄한 비판만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그와 동성애를 나누기 원하는 목회자가 자리한 교회였던 것이다. 이 때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란 교회에서는 이성애자인 척하며 입을 다물고 밖에서는 육체의 탐욕에 스스로를 맡겨버리는 일이다. 교회는 고민 끝에 예배당을 찾는 동성애자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둘째, 영화는 예수님이야말로 동성애에 대한 갈등과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답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어쩌면 이 영화 가운데 가장 명언이라 할 수 있는 대사가 저니건의 절친 척으로부터 나온다. 동성애로 살아온 친구의 고백을 들은 후 척은 매우 감동적인 말을 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답은 안다. 답은 예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답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롬5:8)이라면 가능하다. 어쩌면 당연하고 기독교의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해답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데니스 저니건은 자신의 삶과 그가 만든 찬양곡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싱 오버 미>가 이 시대의 동성애와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의미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동성애자를 향한 정죄와 비판과 같은 공격적인 어투를 쓰지 않고 ‘교회의 동성애자인 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할 뿐이다. ‘동성애자인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알려 주겠소’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셨소’라는 ‘

나 중심의 언어’를 택하고 있는 까닭에 누구도 마음의 불편함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전략이다. 세상이 판단하는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이며 그들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불쌍하며 사회의 약자이다. 이들을 향한 교회의 비판은 역으로 교회를 향한 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성애자를 도울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동성애자들 가운데는 AIDS나 섹스중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돕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오히려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인 사랑의 실천에 동화되어 데니스 저니건처럼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도 ‘싱 오버 미’가 필요하다

지난 11월 14일, 한동대학교에서는 ‘동성혼과 한국 교회의 과제’란 주제를 놓고 콜로키움이 열렸다.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이미 기독교 안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연구된 자료도 비교적 많고 대중에게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동성혼(同性婚, same-sex marriage)’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반면에 그 영향은 동성애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를 둘러싼 세상은 한국 대다수의 교회의 비판적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치달고 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미국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판정을 내리고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혼인행위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전역은 성적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지지하는 무지개 빛 물결로 뒤덮였다. 미연방대법원의 판결 전에도 이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 재선을 앞두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커플의 결혼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통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는가 하면, 금년 1

월에 있었던 국정 연설에서는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성소수자들을 지지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동성애자 영화감독이며 제작자로 널리 알려진 김조광수 감독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조광수 감독은 2013년 9월에 결혼식을 올린 후 3개월 뒤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낸 것이다.


동성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 두 가지로 움직인다. 하나는 국회나 법원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을 주장하며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대중들의 심리적 지지를 얻기 위해 영화와 같은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김조광수와 김승환 동성애자 부부의 결혼식을 다룬 멜로드라마 <마이 페어 웨딩>이 개봉되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비록 지금까지 공식적인 관객수는 4,586명에 불과하지만, 평론가들이 지적한 대로 결혼식이라는 사적인 행사를 통해 동성혼을 인정하라는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동성애를 다루는 기독교 시각에서 다른 영화들은 국민일보를 제외한 일반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는 반면에 동성애 영화들은 언론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동성애를 다룬 퀴어영화제는 매년 언론에 그 행사를 알리며 화제가 되고 있지만 기독교영화제는 교회에서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최고의 영화잡지인 ‘씨네21’

에서 동성애를 다룬 영화 <싱 오버 미>와 <마이 페어 웨딩>을 검색해 보라. <마이 페어 웨딩>은 줄거리나 제작 노트에서 전문가 리뷰까지 다른 영화들과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싱 오버 미>는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두 영화 모두 독립영화 혹은 예술영화로 취급 받는 바람에 전국 극장에 동시에 걸리는 와이드 릴리즈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영화 전문가 그룹은 기독교영화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독교 대학에서조차도 동성혼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독교적 시각을 전혀 개선시키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지난 11월 송실대학교에서 일어난 <마이 페어 웨딩> 상영 불허에 따른 학내 논란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송실대 성소수자 모임 SSU LGBT는 학내에서 인권영화제를 열고 김조광수 감독 부부를 초청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영화제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사와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주최 측이 이에 반발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와 영화적 감동을 훌륭히 전달하는 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소극적인 방어에 머물고 있는 형편임을 보여준다.

서울에서 기독교 문화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필름 포럼’이 이 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중이다. 지난 부활절에도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는 상영할 극장을 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볼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마침 ‘필름 포럼’이 교회로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보면 좋을 듯 싶다. (문의: 필름 포럼, 02-363-2537) 

* 이 글은 「갓피플 매거진」 2015. 10월호와 「월간 고신」 2015. 11월호에 실린 필자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_엡 3:17-19



생명 윤리학 1

저자 피터 싱어, 헬가 커스 공저 | 역자 변순용 | 인간사랑 | 정가 27,000원

원제 A Philosophical Disease

이 책은 생명윤리학에 정통한 학자들이 주요문제들과 핵심 개념을 일반 독자나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46개의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 간호사, 변호사, 언론인, 철학자, 신학자, 사회학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자살은 죄인가?

저자 김기현 | 조이선교회 | 정가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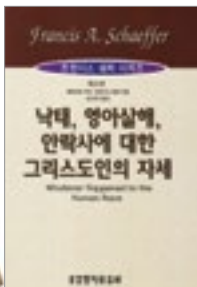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 경제적 원인, 가정적 원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살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살률이 증가한다. 이 책은 자살자를 믿음이 부족한 자, 비겁하고 나약한 자로 몰아가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지적한다. 또한 본회파와 장 아메리의 신학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자살의 빛과 그림자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하고 있다.



자살 : 자살에 대한 목회적 반응

저자 로렌 타운젠드 | 역자 박선규 | 순전하나드 | 정가 10,000원

목회자들이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 생존 가족들에게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저자는 자살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하고 부드럽게 실제적인 조언을 해준다. 자살을 둘러싼 유형들과 이슈들을 정의하고 사역자들로 하여금 자살에 관한 특별한 신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목회적 중재와 자살 방지를 위한 여러 단계들을 알려주어 목회자들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책을 통해 수 세기에 걸쳐 교회가 자살의 행위에 대해 어떤 다른 해석들을 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성서적이며 역사적인 배경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저자 에버리트 쿠퍼, 프란시스 쉐퍼 | 역자 김기찬 | 생명의 말씀사 | 정가 11,000원

원제 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프란시스 쉐퍼」 시리즈 제21권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낙태, 영아 살해, 안락사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낙태와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 이면에 있는 이념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Progeria 조로증, 早老症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배고픔과 배앓음

팬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일본 양심의 탄생

Progeria

조로증

早老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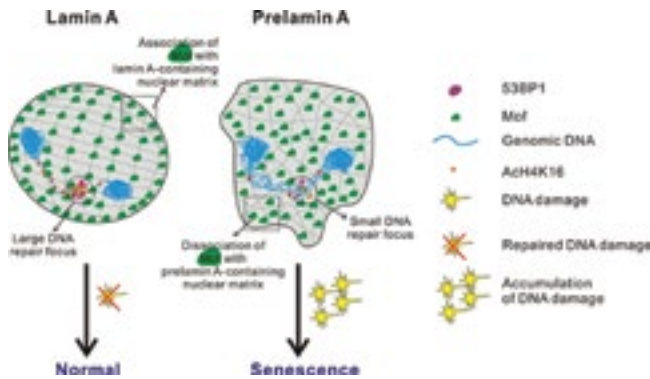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 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 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신행위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열두 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드문 유전질환이다. 신생아 팔백만명중 한명꼴로 태어나는 희귀질환이다.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의 평균 생존 수명은 13세 정도이다. 태어나서부터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어서 10대에 다다르면 보통 90~100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신체적인 상태가 된다. 정상 성장의 약 8~10배에 해당하는 노화가 진행된다. 이들의 1년은 정상인의 7~8년 시간의 흐름과 같다. 현재 전 세계에 약 300여명의 환자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 태어나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러나 모유 분유등을 잘 먹지 못하기 시작하여 2~3세가 되면 몸에 잔털등도 없어지고, 얼굴이 작아지며, 코가 매부리코처럼 변하는 특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자라면서 피부의 주름이 늘어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심장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시력을 잃기도 한다. 신장기능이 저하되고 근 골격계의 노화가 진행된다. 그러나 운동신경과 정신적 활동은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레슬리 고든은 여의사이자 조로증 환아를 둔 어머니이다. 아들 샘(Sam Berns)이 첫막이었던 1998년에 이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자신의 연구주제를 조로증으로 결정하고 결국 박사학위를 조로증으로 받게 된다. 레슬리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힘을 모아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유명한 크리스천 과학자이고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의 원장인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와 함께 이 병을 초래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지만, 오히려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축적되었다. 비정상성을 알기 위한 노력이 정상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는 일들이 생겨났다. 남을 알고자 했는데, 나를 알게 된 것이다.

이 병의 원인은 LMNA라는 유전자의 변이로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전자의 변이로 인하여 세포내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된다.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세포핵이다. 세포핵막에 변형이 생겨서 질병이 발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생시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점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마치 노인처럼 머리가 빠지고 체지방이 증가하면서 관절의 경직과 동맥경화를 경험하게 된다.

치료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아들 샘의 치료를 위한 레슬리의 집념은 이 병을 앓고 있는 모든 환아들을 자신의 아이들과 같이 생각하게 하는 확장된 자녀의 개념을 갖게 하였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하여 첫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하였으나, 너무나도 희귀한 질병이라 연구 참가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연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25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로나파립이라는 항암제로 쓰이던 약제를 사용하여 연구되었다. 이 약제는 항암제로 개발되었으나, 개발과정에서 노화과정에 관여하는 기전을 발견하여 이 약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레슬리의 아들 샘도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2010년에 종료된 연구는 현재 미국립보건원의 후원을 받아 후속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레슬리와 스콧(샘의 아버지이며 그 역시 소아과 의사이다)의 아들 샘은 1996년 10월23일에 태어났다. 두 살 생일이 지나고 난 후 샘은 조로증의 진단을 받았다. 샘이 태어난 후 부모들은 Progeria Research Foundation이라는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이 병과 싸움을 시작한다. 현재 이 단체는 미국립보건원과 더불어 조로증의 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샘이 13세 되던 해, 샘의 이야기를 담은 “Life According to Sam”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미국 전역에 방송되면서 샘은 이 병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방송에서 샘은 이렇게 시작 한다 “저를 보시고 동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유 있는 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샘은 열정적인 아이였다. 수학, 과학, 코믹한 책들, 보이스카웃등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샘은 자신의 시간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늘 간직하고 살았을 것이다.



2013년도에 샘은 TED talks에 출연하여 “My Philosophy For A Happy Life”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이야기한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아야 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첫째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흔쾌히 ‘OK’ 라고 외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할 수 없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라는 것이다. 가족, 친구, 멘토와 같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늘 미래를 향한 생각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에 시간을 쓰지 말고, 늘 앞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2014년 1월에 샘은 만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샘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으며 대학에서 유전학이나 세포생물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다.

사춘기를 겪을 겨를도 없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삶의 황혼을 겪어야 했던 샘. 몸은 100세에 가깝지만, 생각은 청소년인 샘의 삶.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갈 때, 일 년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시간의 흐름을 살아야 했던 샘. 지금도 샘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환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땐 시간을 조작하는 꿈을 꾸었던 어린 시절의 소원이 또 다시 간절해진다. 



Intelligent
Intuitive
Ingeniously Practical

양심을 다는 정밀계량
오하우스

Ohaus Ranger®7000

- 최대용량 3 kg ~ 35 kg
- 정밀도 0.00005 ~ 0.0005 kg
- 안정화 시간 1초 및 상거래 인증
- 내구성 보장의 IP54 케이스 및 미탈 본체
- 견고한 모듈식 설계



Ohaus Adventurer™-AX

- 최대용량 120 g ~ 8,200 g
- 정밀도 0.0001 ~ 0.1 g
- 컬러 터치 스크린으로 손쉬운 사용
- 알면 USB포트 및 공간 절약형 방풍문
- 안정성, 정확성 및 빠른 작동



휴대용pH미터 및 펜미터



Ohaus ST5000

- 0.1/0.01/0.001pH 분해능
- 1000개 메모리
- 100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메모리
- 3포인트 모드
- LCD 터치-스크린

Ohaus 원심분리기 Frontier

- 6500~ 15000 RPM까지의 다양한 모델
- 8 x 1.5/2.0 ml ~ 44 x 1.5/2.0 ml 성능
- 10분에 4°C까지 쿨링되는 강력 냉방시스템
- 탁월한 진동 흡수력
- LCD 터치-스크린 제어 패널
- Made in Germany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824호

Tel.(02)2040-6388 Fax.(02)2040-6392

<http://www.ohaus.com>





배고픔과 배아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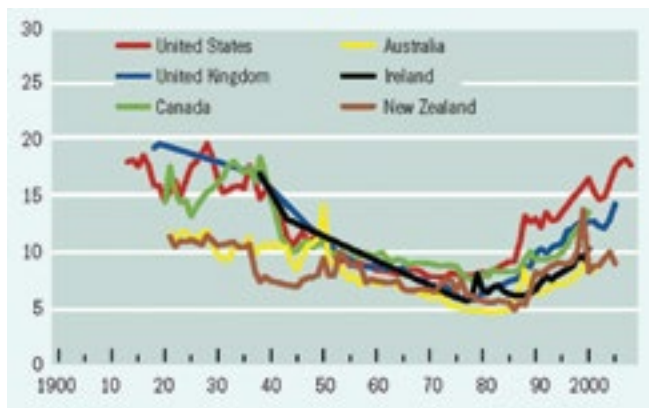


배가 고파도 참기 힘들고 배가 아파도 고통스럽다. 배가 고파서 아플 때나 배가 아파서 먹을 수가 없을 때에는 고통이 갑절로 증폭된다. 경제성장으로 배고픔이 해소되더라도 상대적인 배아픔은 발병할 수 있다. 양자가 필연적이지는 않더라도 종종 상반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지향점은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모든 경제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S. Kuznets, 1901~1985)는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되더라도 경제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소득 불평등도도 개선되는 것이 자명하다는 가설을 주장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70~80년 동안의 세계경제 상황이 그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그림 참조). 그런데 1980년대부터 최근 30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라 소득 분배율을 한 국가 내에서 소득 상위 1% 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으

로 산출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면,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율의 가파른 상승세를 고찰할 수 있다. 미국이 가장 두드러진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30년간 대체적으로 소득 분배율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개발도상국들도 대체적으로 영어권 국가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0년대부터는 다시 하향세를 보임으로써 추세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즉 배고픔이 해소되더라도 배아픔은 악화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영어권 국가들의 소득 상위 1%의 소득분배율 추이(%)



자료 : IMF, Finance & Development, september 2011, p.28



김태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와이 열방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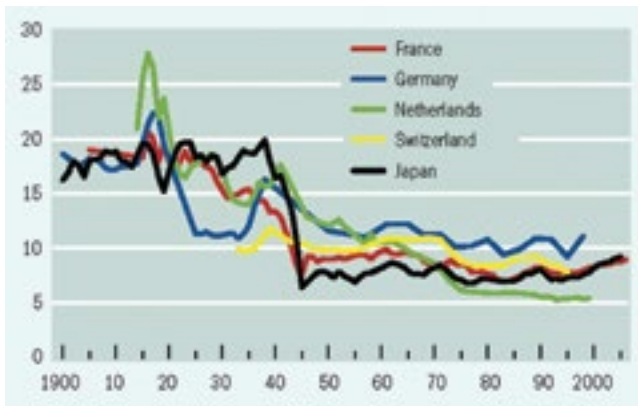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5.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경제성장

6. 배고픔과 배아픔

7. 청년 구직 용돈 50만원

유럽 국가들의 소득 상위 1%의 소득분배율 추이(%)



자료 : IMF, Finance & Development, september 2011, p.28

개발도상국의 소득 상위 1%의 소득분배율 추이(%)



자료 : IMF, Finance & Development, IMF, september 2011, p.29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2003~2009년에는 다소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는 다소 개선되거나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즉, 전체 인구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배율(소득 5분위), 소득 분포의 중간값(50%) 소득자 대비 그 수준 미만 소득자들(가구)의 비율(상대적 빈곤율)이 이러한 소득 불평등 양상을 대동소이하게 나타내고 있다(표 참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배고픔과 배아픔은 동반하기도 하고 상반되기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분배지표 추이(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배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니계수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소득 5분위 비율	5.38	5.60	5.71	5.75	5.66	5.73	5.54	5.43	5.41
상대적 빈곤율(%)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14.4

자료 : 통계청, 「2015년 1분기 가계동향」, pp.15-17

배불러도 아프다

소득이 증가하면 기대수준도 달라진다. 식사 후 배부르게 되면 식사 전 배고플 때의 기대수준과는 달리 다음에는 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행복감과 정신적 건강함도 향상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계은행(IBRD) 통계에 따르면 세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2005년 가격 기준(불변가격)으로 1961년에는 3,134달러였으나 2014년에는 7,929달러로 53년 동안 2.5배 증가하였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세계 전체 극빈층의 수는 1981년 약 19억 3천만 명에서 2014년말에는 약 8억 4천만 명으로 감소하였다.¹⁾ 그런데 각종 범죄를 포함한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증폭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1,000명당 자연 사망자 수는 세계 전체에서 1973년에는 11.3명, 1993년 9.1명, 2013년 8.0명으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는 사고와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7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5~6명으로 거의 일정한 편이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늘어나기보다는 8~11명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14세 이하 후천성 면역 결핍자(HIV, 에이즈 보균자) 수는 1993년 세계 전체에서 9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년 후인 2013년엔 320만명으로 오히려 3.6배 증가하였다.

가난한 자들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도 아픔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픔에는 절대적 아픔이 있고 상대적 아픔이 있다. 먼저 절대적 아픔을 살피볼 때에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들이 있다.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절대적 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인구)의 비중)이 올라갈 수도 있다. 소득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면 실질소득은 감소하게 되므로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편적인 생활수준이 향상하고 생활방식의 변화로 최저생계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설령 소득이 실질적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필수 생계비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식료품 가격이 인상되거나 휴대전화기와 인터넷망 사용, 생수/정수 소비 등이 필수적인 소비 품목으로 추가됨으로써 여전히 최저생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세계은행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05년 가격수준 기준(불변가격)으로 1960년 1,107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23,893달러로 무려 22배나 증가하여 괄목할 실질 성장세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절대적 아픔(빈곤)은 여전히 남아있다.²⁾

상대적으로 아픔이 깊어질 수 있는 현상에도 유의할 부분이 있다. 개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상승하여 절대적 수준에서는 분명히 아픔이 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아픔에 힘들

1 극빈층의 기준으로 1981년에는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비였으나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2014년의 경우에는 하루 생활비가 1.25달러가 적용되었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은 2005년 6.8%에서 2009년 7.0%로 상승했다가 2013년 5.9%로 하락했으나 변화폭이 작다.

어하는 것은 첫째, 비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둘째, 반면에 계층 이동은 더욱 제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이 가속화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빈부격차를 감지하고 비교하기 한결 쉬워졌다. 소수의 부자의 성공담이 급속하게 회자되면서 선망되기도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도 있다. 물리적, 지리적 칸막이가 허물어지면서 '상대성의 원리'의 파급력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더욱 치열하고 전문화된 경쟁여건은 소득 계층 간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부의 상속이 교육과 사회문화의 상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배아픔은 자존감의 훼손과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 배아픔은 배고픔(배부름)과는 별개로 처방전이 없는 전염병(!)이 될 수 있다. 심리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배아픔이 지속된다면 처방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도 아시는 배고픔과 배아픔

하나님도 인간의 배고픔과 배아픔에 골몰해 오셨음에 틀림없다. 요셉에게 기근 대책을 마련하게 하신 것이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먹거리를 제공하신 것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고아, 과부, 나그네)에게도 밥의 소산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신 것이나,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신 것이나, 오병이여로 삼천 명, 오천 명을 먹이신 것은 모두 배고픔을 돌보신 과정이었다. 배고픔은 본능적이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현상이다. 오늘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기 때문에 오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배고픔을 매일매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한 달 치나 일 년치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것은 인간이 매일의 배고픔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실존을 매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9년이 지나면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희년제도나, 열두 지파 속속별로 제비뽑기로 땅을 배분하신 것이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나,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각각 은사를 부여하신 것이나, 새 예루살렘성에서 모두가 왕 노릇할 것임을 계시하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 배아픔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평한 상호의존성을 드러내신 것이다. 공동체 의

식과 태도가 악화되면 배아픔이 불췌불췌 튀어나올 수 있다. 이집트 바로왕과 그의 측근들은 더할 나위 없이 배부른 상태였으나 배아픔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유대 민족의 번성을 공동체 내에서 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배아픔의 속성을 간파하고 계신다. 배고픔이 해결되더라도 배아픔의 갈등은 남아 있을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고픔에 대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너그럽게' 공급해 오셨지만 배아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하게' 진단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배고픔(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원천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반면에 배아픔(상대적 빈곤)은 비교 집단 내에서 후천적으로 유발되어 '빈곤감'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은 집단(공동체)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운영의 문제이자 구성원의 개인적 책임성의 문제로 진단되어진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혁신하는 제도적 방식과 개인의 은사를 부여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상대적인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가르치신다.

배고픔과 배아픔을 넘어

배고픔의 고통도 줄여야 하고 배아픔의 발병률도 낮추어야 한다.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이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세계 인구의 약 12%라고 하니 놀랍고도 애통하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증가하더라도 일부 계층에 부가 편중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다수의 행복감은 감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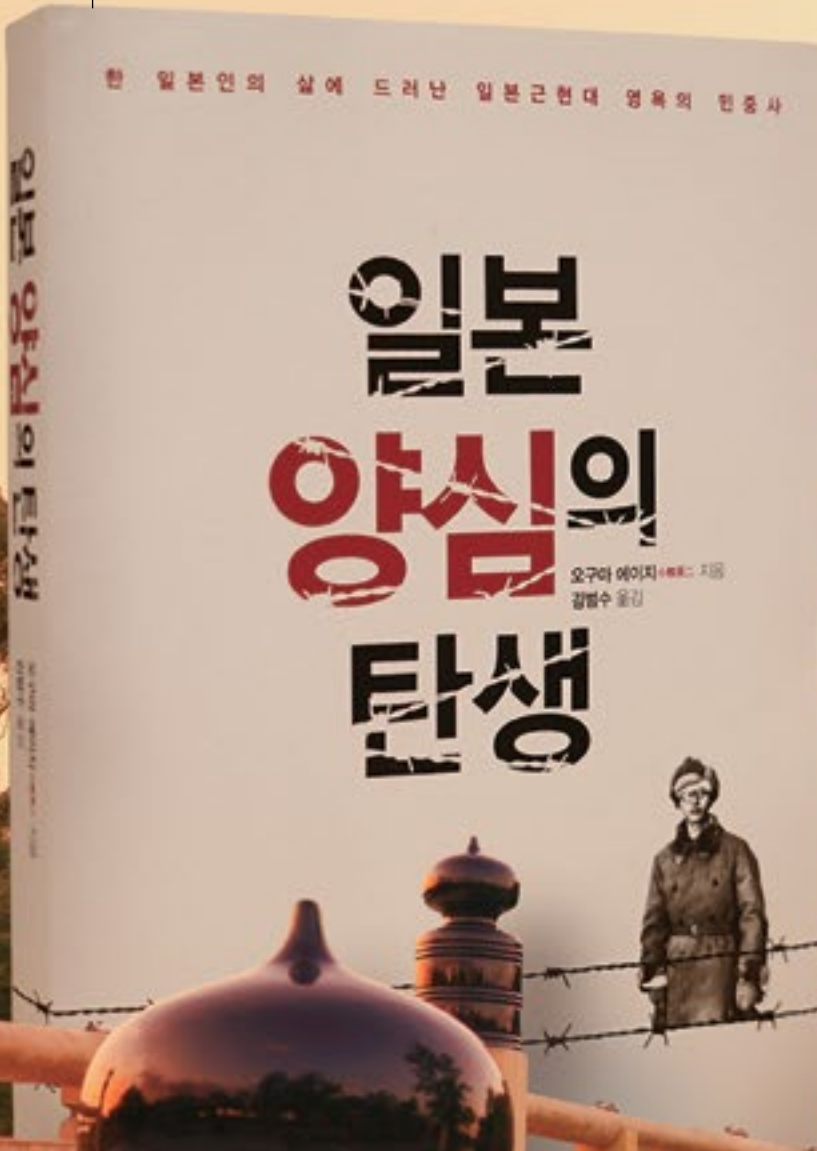
성장의 경제와 분배의 경제는 배타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이 되어야 한다. 배고픔을 우선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배아픔이 질병 또는 피병으로 고착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체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빌 4:12) 신앙의 진정한 자유로움이 상대주의적 불평등의 불편함을 능히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멤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멤스북』은 사단법인 멤스기브에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작합니다. 『멤스북』에서 선정한 인문도서를 매월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 **Recommend** **일본 양심의 탄생** 오구마 에이지 저 | 동아시아

일본 시민운동의 아이콘이자 ‘데모하는 지식인’이란 수식어를 가진 일본 게이오대 역사사회학자 교수인 오구마 에이지가 한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일본의 지난 20세기를 구현했습니다. 주인공은 오구마 에이지 교수의 아버지 오구마 겐지로 저자는 1925년생, 올해 한국 나이로 91세인 오구마 겐지의 일생을 인터뷰하면서 민중사, 개인사적 서술을 통해 지난 20세기의 일본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Thankgive's Think

물결따라 춤추는 자들에게 고함

“나치는 10%에 불과했는데, 왜 90%의 독일 시민들은 홀로코스트를 막지 않았죠?”

1967년 캘리포니아의 큐버리 고등학교 역사 수업 시간, 한 학생의 질문으로 실험이 진행된다. 교사 론 존스는 30명의 학생들에게 회원증을 나눠주고 몇 명의 아이들에게는 질서유지 임무를 부여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파도당’ 모임이 시작되고 실험 3일 만에 회원은 200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가입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회유와 협박,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실험 5일째, 론 존스는 파도당을 강당에 모아놓고 ‘현재 국가는 비상사태다, 파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조국을 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학생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지만 파도운동의 창립자이자 지도자가 화면에 나타나자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론 존스가 화면에 띄운 인물이 ‘아돌프 히틀러’였기 때문. 학생들뿐 아니라 론 존스 역시 실험을 진행하며 독재자 역할에 본능적으로 빠져들었다고 고백한다. 론 존스와 파도당에 가입한 학생들의 마음 밭이 다른 사람들보다 거칠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

우리는 주저 없이 나라, 종족, 언어, 학력, 계급과 관계없이 인간은 평등하다고 배우고 가르친다. 여기서 교육의 미신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인간 평등’은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가 분명하지만, 교육만으로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을 보고 영웅으로 만드는 행위도, 나쁜 측면만 보고 악인으로 몰아가는 행위도 올바른 인간 이해가 아니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누구나 ‘파도당’의 열심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자. 인간 존재의 모순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간 평등’이 가능해질 테니.

keyword

사회참여적 삶 # 전쟁 전후의 삶 # 포로 출신자 차별 # 타자에 대한 상상력 # 살아서 돌아온 남자

THANKS BOOK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안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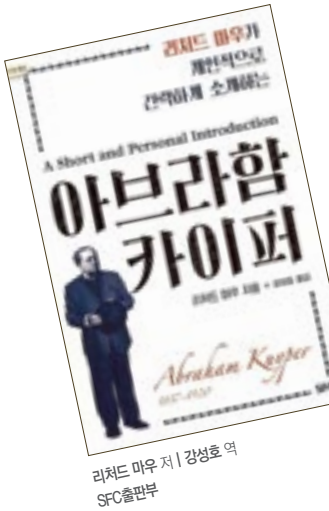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헤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서평 『아브라함 카이퍼』

익숙하지만 낯설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감동하고 열광했지만, 무엇으로 흥분했고 어떤 잔상으로 기억하는지 알아 보면 각인각색으로 다양한 지점에 머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최대의 지지를 받아 자리에 오른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비난하는 경우, 이상을 바라고 지지한 각 개인의 온도 차이는 피선거권자의 거리감 못지않다. 이론적으로는 덕장(德將)을 최고로 말한다. 내가 실수하고 부족할 때야 덕장 모신 것을 감사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불안울 느낄 때면 ‘용장(勇將) 아닌 것도 장수냐?’고 기본 자질을 들먹인다.

어쩌면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원하는 것만 보기를 바라는 감각과 인지의 구조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말 만큼 쉽지 않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는 교실에 담임선생님이 들어와 5분 정도 전달 사항을 말씀하셨을 때, 아이들이 바라보고 기억하는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거기에 덧붙여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시비나 선호를 묻게 되면 생각 이상의 다양한 답들이 나온다. 다양한 시각과 생각, 감정은 다르다는 이유로 반목을 낳기도 한다.

coram deo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우리들이 긴장하며 좋아하는 말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 가두려던 삶과 신앙을 견고한 복음으로 자유롭게 풀어냈다. 신학자이며 정치가, 교육자, 언론인 등 입체적인 삶을 산 아브라함 카이퍼는 파격적인 행보에 비해 복음주의자로 기억된다. 그의 용감한 활동과 깊은 통찰은 ‘이 시점에 한국에 카이퍼가 있다면 통과하고 자랑스러운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한다.

지금 우리는 혼란스럽다. 인터넷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개독교라는 표현이 일상적이다. 이런저런 일어날 법한 문제와 모습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구분 없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한다. 우리가 믿는 것이 행동의 선함

이나 말의 유능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지탄을 받을만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예요.”라는 궁색한 변명이 더 슬프다. 선행으로 구원받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일단락하자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모범적이며 윤리적이어서 할 충분한 이유를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어느 한 구석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자명하다.

어릴 때 교회 장로님은 강렬한 목소리로 명령하시곤 했다. “주의 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

머지 시간에는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겨루며 살아 내야 한다. 주일에 절대 다른 약속 하지 말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마라. 집에 갈 때에야 교회 문을 나서라.” 당신은 주일 새벽이면 일주일 동안 묻은 세상의 때를 털어 내느라 구두 바닥 흠까지 박박 씻어 내고 교회로 향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다. 저녁 기도와 헤어질 때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결연함으로 굳은 악수를 힘껏 하시곤 했다. 추상같이 느껴져 교회에 들어서면 실내에서 하루 종일 맴돌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면 마치 고향을 떠나는 서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울렁거렸다. 그렇게 선과 악, 빛과 어둠, 교회와 세상,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대립과 투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았다. 또 그 치열한 접경에 있지 않으려는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교회와 성도라는 거룩한 구분이 감격스러워 경건을 기꺼이 지키려는 선택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이 신앙상답이곤 했다.



유선덕 국민대학교 문화학 박사, 국민대 문화교차학연구소 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한국기업상담센터 대표, 일터에서의 개인과 조직의 만족을 위한 문화사역으로 상담, 교육, 연구 활동 하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반은총과 문화사명으로 이러한 우리의 갈등과 소모를 해결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으며, 온 천지에 편만한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하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함으로 누구보다 창의적인 삶을 살았다.

이 책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리처드 마우가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 세대에 어떻게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장은 신학과 문화에 관련된 카이퍼 시각 개관이고, 2장은 변혁적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합한 메시지로서 카이퍼를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쓴 리처드 마우를 지나쳐 아브라함 카이퍼만을 말하기는 어렵다. 리처드 마우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풀러 신학교 총장이었다.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풀러에서 여전히 「믿음과 공적인 삶」을 강의하고 있다. 리처드 마우에 대한 뚜렷하고도 분명한 논란의 증거를 차치하고, 그가 왜 굳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가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서문에서 마우는 분명하게 밝혔다.



카이퍼의 확고한 칼빈주의에서 나는 내가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망이었다. 그 전망은 사적인 것이 되어버린 복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공적인 제자도에 접근하는 방식들의 사이로, 나로 하여금 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 전망을 찾은 이후로 나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애썼다. (12쪽)

결국 마우가 말하고 싶은 자리에 아브라함 카이퍼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마우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상상해보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전향했다. 그러한 획

기적인 지점에 피어처 발투스라는 사람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었다. 카이퍼는 그의 권위를 거부하던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그들과 맞서지 않으려 노력했다. 젊은 목회자가 취했던 훌륭한 태도와 행동덕분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물론 아브라함 카이퍼가 모든 것에 완벽하게 옳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견고함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기에 영역주권과 문화 신학을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다형성에 대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설명은 근대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희망이 되었다. 다양함은 은혜의 증거이기도 하고, 우상의 빌미이기도 하다는 마우의 지적은 예리하다. 놀라게도 마우는 '모든 훌륭한 것들을 어떤 '주의(-ism)'의 핵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이와 같은 마우의 영리하고 세련된 표현이 가득하다.

마우는 재미있고 유익하고 편하게 아브라함 카이퍼를 소개한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족적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의 마땅한 의미와 가치를 뜨겁게 확인시켜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는다면 도저히 맞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말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충만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충만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보다 더그럽고 온유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왜 아니겠는가? 일반은총은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특별한총만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다. 온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생, 만물의 존재를 보건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리처드 마우는 그리스도인이 매정함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힘 있게 말한다.

마우는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깊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과 주님께 문화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

아야 함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서문에서 밝힌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타당성을 찾아 의뢰하며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신학으로 끝맺었다. 그런데 문화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세기의 관점에서 문화는 문치교화(文治教化)나 경작(culture)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중국 고전에서 문화의 '문'은 文과 紋이었으며, 사실 구분없이 사용되었다. 본래적인 의미로 보자면 있는 그대로의 표현과 고유함을 나타내는 紋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견해가 형성되고 있다. culture가 라틴어 colore에서 출발하여 agriculture에서 파생되었다면 미묘하게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문화는 외부에 있는 최상의 어떤 것을 지향하기보다 창조 본연의 모습의 다형함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근대의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조짐에 대해 분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문화사명을 주장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구원받은 우리가 창조로의 회복에 열심이어야 함을 말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문화가 중요한 코드이며 경쟁력이고 가치라고 강조하는 분위기에 있다. 어딘가에 있는 고급스럽고 강력한 문화를 지향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완전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제대로 있어야 할 것이다. 구원의 감격이야말로 문화사명이며 문화야말로 하나님 창조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마우가 염려하며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인용하며 권면하듯 우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매정하고 교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야말로 각자 타고난 성정(性情)대로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이며 사명 아닐까 생각한다. ☺

서평 『빠름에서 바름으로』

공교회의 터를 세우다



신동식 저
우리시대

작년부터 모(母)교회를 떠나 신촌의 작은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학부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특별히 CTC(크리스천씽킹센터, 대표 유경상)에서 연구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교회교육에 대해 준비해 둔 상황이라 첫 사역이 두렵지 않았다. 부푼 소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사역자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는데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모질었다. 내가 담당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절반이 이혼가정이었다. 집에 돌아갔을 때 그들을 돌봐 줄 어른들이 없었다. 아이들은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린 후 5~8시간을 피시방에서 보냈다. 하나의 대안으로 아이들과 청년부를 멘티-멘토로 연결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빠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예배만 드리고 떠났다. 그 위의 세대도 마찬가지였다. 4~50대는 직장가 가정의 스트레스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자녀인 유치부와 초등부까지 타격을 입었다. 결국 교회 전체적으로 저출산, 청년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버렸다.

신동식 목사의 <빠름에서 바름으로>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많았던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저자는 목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목사이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직윤리 운동본부장으로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총 13개의 진단(1부)과 15개의 대안(2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내용들을 읽어 보면 저자가 꿈꾸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을(강해설교로) 선포하는 목회자와 신앙고백적 성도로 이루어져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교회'이다. 이것은 이 책의 주제이며 저자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부에서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이러한 모델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진단한다.

한국 교회를 명들게 하는 13가지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대형교회 바라보기, 터가 무너진 공교회, 무너진 성경의 권위, 천박한 설교, 부족한 구원관, 재정의 불투명성, 도덕적 무능력, 도구주의 목회, 혼합주의 교회, 정치적 이념, 탐심과 욕망, 표지를 분실한 교회, 빈약해진 은혜의 수단이다. 그런데 이 13가지 문제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무너진 성경의 권위로 인해 천박한 설교가 나오고, 천박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부족한 구원관과 도덕적 무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보면 그 안에 다른 문제들도 함께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당뇨로 인해 합병증이 온 것과 같다. 한 가지가 무너지면서 다른 모든 부분이 무너지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진단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라는 우상에 사로잡혔다고 말한다. “대형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결국 이것이 교회를 잡아먹었습니다.”(26면) 결국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목회자들부터 교회의 대형화가 곧 목회의 성공이라는 공식을 성립시켰다고 말한다. 이러한 세속화가 실천적 무신론자, 익명의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들을 만들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꿈꾸는 것은 그것이 주는

혜택 때문이다. 저자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한다. 팀 켈러는 성취감과 평론가들의 갈채, 체면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심지어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대형교회 우상에 빠져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대형교회가 우상화됨으로 인해 교회의 공교회성이 무너졌다고 말한다(33면). 공교회성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1970년대만 해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주보를 가져오면 교회 출석이 인정됐다. 교회를 옮길 때에도 이명증서가 반드시 필요했고 반드시 자신이 다녔던 교단 교회로 옮길 만큼 교회의 교리교육과 신앙 색깔에 대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31면). 하지만 성장 제일주의에 빠진 대형교회로 인해 수평이동이 생겨나고 교단적 특색이 다 사라졌다. 오순절 장로교, 감리교 장로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의 교단은 매우 보수적인 곳에 속했지만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수련회 때 ‘쭈쭈방언’을 알려주는 목회자도 있었다. 우리는 실로 경악했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단은 짬뽕교리는 표현하기도 했다. 저자는 우선 교단들이 자신들의 가진 교리와 헌법에 정결해야 무너진 공교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4면).



김영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영어과정(AIGS)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목회학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CTC(크리스천생강센터, 대표 유경상)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중이며 신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별히 크리스천 성교육을 연구하며 대안학교와 교회 수련회에서 특강으로 섬기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한국 교회가 추락하는 원인을 천박한 설교에 두고 있다(45면). 천박한 설교란 성장을 위한 설교,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설교, 성공을 위한 설교를 말한다. 개인적으로 천박한 설교는 목회자가 평소에 품고 있는 세계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설교자는 성경전체가 전달하는 성경적 세계관에 깊게 잠겨야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노력과 집중을 요구한다. 또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천박한 설교는 이것을 무시함으로써 나타난다. 그리하여 결국 저자가 경고하는 것처럼 강단에서 허탄한 이야기(답후 4:4)가 들리고 있고, 성도들이 허탄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47면). 바른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성품의 변화가 있는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만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이다.

기윤실이 조사한 신뢰지수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바꿔야 할 것으로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일치'가 42%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67면). 결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실제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고 말한다. 세상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도덕성인데 횡령과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칼부림까지,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저자는 도덕성과 더불어 표지를 분실한 교회를 언급한다. 프란시스 웨퍼의 말을 인용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 있는 표지는 사랑(102면)이라는 저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고 말씀하셨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거룩함과 사랑에 있다. 그런데 탐심과 욕망이 이 거룩함과 사랑을 식게 하고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66면). 바른 신학을 상실함으로 각종 성장 세미나를 위시한 도구주의 목회를 추구하게 되었다(80면). 또한 성경적 세계관을 상실함으로 다원주의, 상대주의, 엘리트주의 등 혼합주의 교회로 변질되게 만들었다(84면).


저자는 이렇게 어두운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진단한 후 2부에서 15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의 속도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목회관이 핵심이다. 저자는 숫자의 울무에서 벗어날 때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한다(123면). 또한 교회와 신앙에는 대박이 없다고 하였는데 교육전도사로 중고 등부를 맡으면서 대박을 노렸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평균 출석이 15명 정도였는데 어느 날 30명이 넘게 왔다. (심지어 전도축제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인원이 배가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회 성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날 한 번뿐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웬지 모르게 우울감이 찾아들었다. 내 안에도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교회의 성장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122면). 그런데 소위 교회를 부흥시킨 스토리를 담은 책들을 보면 온통 기도로 성공한 간증들이 넘쳐 난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 밤낮 기도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목회자의 내면에서는 사람의 원함과 성령의 주권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겨 내는

방법은 오직 인내다. 빠름보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이어서 저자는 목회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소양의 변화를 촉구한다. 소비자 중심의 설교에서 십자가 설교로, 성장 기술자에서 설교자로, 유행에서 자긍심으로, 지름길에서 좁은 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가 목회현장에서 세속화에 맞서 몸부림치면서 추구해 온 목표들이다. 초대 교회가 보여 주었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고민하며 싸워 온 흔적들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목회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은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이어진다. 특별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앙고백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에 가장 슬퍼한다. 저자는 가나안 성도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지적한다(158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백적인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없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과 주문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판가를 날 것이 분명하다.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신앙고백을 가지지 못한 성도는 무너질 것이 뻔하다(163면).

또한 고백적 신앙인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적신앙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173면)은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사회적영역에 가두고 우리들만의 신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세상과 동일하게 부와 허영을

좃지 말고 작은 영역에서부터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라고 강조한다(178,206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정직', '책임의식', '배려심' 등이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되게 해야 한다.

끝으로 저자는 교인에서 식구로, 분리형 예배에서 통합형 예배로의 변화를 강조하며 공동체성의 회복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임을 밝힌다. 식구는 서로 알고 있는 관계라는 의미이다(225면). 실제로 천명단위의 교회만 다녀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수도룩하다. 같은 부서에 있어도 누가 왔다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이 많으면 누군가 교회에 새로 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드물다. 반대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목자가 양을 모르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 이 책을 읽은 시기가 종교개혁 주간이었다. 손봉호 장로는 교회가 종교개혁 이래 가장 타락했다고 하였는데 실상이 그러하다.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루터처럼 등장하여 개혁하고 투쟁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루터의 후손인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쓴 저자도 그것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다. 모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산물인 만큼 그들의 신학적 가르침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고 빠름에서 바름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서평『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교리문답 77』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아이 세우기

한국 교회에 교리교육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외적 부흥은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90년대까지 성장하던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쇠퇴일로에 있다. 교인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사회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쇠퇴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유입, 진리의 상대화와 파편화, 저출산과 고령화, 교회내의 다양한 부조리와 도덕적 불감증, 천편일률적인 외적 성장의 추구, 교회교육의 질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신앙과 믿음의 기본을 잃어버리고 방향성과 목적을 상실하게 된 데는 교리교육의 부재도 있다. 어느 때부터 교회에서 교리교육이 소홀해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행사가 한국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부흥의 발돋움했던 시기는 어렵고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였다. 오히려 이 시기의 한국 교회는 부흥회보다는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진리(교리)를 알아 신앙을 고백하고 행함과 실천으로 살아가던 시대였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는 새로움을 추구함으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개혁된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의 논리적 체계인 교리를 알고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고백을 통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이다.



저자 싱클레어 퍼거슨 저
 김향석, 권혜영 역
 우리시대
 원제 Big Book of Questions
 & Answers: A Family Devotional
 Guide to the Christian Faith

이러한 때 한국 교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교리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앙의 기본과 뿌리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외적 부흥을 위해 힘쓰던 교회가 내적 성찰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고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숙고함으로 교리를 배우고 알아 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신앙의 기본을 확고히 다진다는 차원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준다.

사실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뿌리이다. 교리는 성경의 진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향점이다.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놓은 신앙고백이다. 교리는 교회가 오랫동안 성경의 진리를 위해 투쟁한 영적 싸움에 대한 승리의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교리가 정립된 시기는 교회를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의 혼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거짓을 막아 낸 시대였다. 교리는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진리를 표명한 신앙고백으로 교회의 믿음과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진리 체계이다. 역사적으로 개신교 교리는 그 시작을 알리는 종교개혁에서 만개했다. 교리교육은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데 있어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한국 교회가 교리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시점에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교리교육에 대한 책이 나왔다. 저자인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B. Ferguson)은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목회자이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다. 조직신학 교수답게 책의 구성은 개혁주의 전통의 조직신학 체계를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교리교육은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리문답의 형태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교육되어 왔다. 저자는 교리교육의 전통적인 문답식 교육방법



이정규 강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개혁신학연구원(M.div.)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한국성서대학교에서 보육학(M.ed.)을, 총신대학교학원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전공하여 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예정원어린이교육재단, 예정원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다.

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교리들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한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리교육 교재나 교육방법이 부재한 한국 교회에 이 책은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이며 함축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격의 80%가 형성되는 어린 시절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배우고 이해한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 진리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다는 의미이다. 사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소요리문답을 통해 교리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본서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교리문답 77』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77가지의 문답형식으로 만들어 어린이가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주일학교에서는 교사와 어린이들이 하나의 교리적 주제를 가지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쉽게 교리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교리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도록 만들어져 있으

며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된 말씀을 찾아 암송하여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주제에 맞는 교리문답 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직접 교리를 통해 배운 것을 적용하도록 제시하며 어린이가 스스로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안내해 준다.

1문-8문답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묻고 대답한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묻고 답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고백한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 9문-12문답은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알려준다.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죄로 인해 타락하여 무슨 일들이 벌어졌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 대해 13문-16문답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



에 보내주시는 것임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한다. 17문-28문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룬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공생애 사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과 승천,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소개한다. 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임을 말한다. 28문-37문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을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과 모습의 실제로 제시한다.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은 성령 안에서 팔복을 행하며 누리는 삶임을 저자는 보여 준다. 38문-50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친다. 특히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51문-54문답은 성경이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다. 55문-64문답에서는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각 절로 나누어 설명한다. 저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소개한다. 65문-72문답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말하면서 교회의 역할과 사역, 예배와 성례(성찬과 세례)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73문-77문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실 것임을 약속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마지막 날임을 다룬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과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임을 소개한다.

본서는 성경의 교리들을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어린이가 쉽게 교리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하나님, 인간의 죄와 타락,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 구원, 팔복, 십계명, 성경, 주기도문, 교회, 종말에 대한 교리에 대해 묻고 답한다.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시 질문을 하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어린이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찾아보고 말씀을 암송한다. 주제 교리와 관련된 활동 작업을 통해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면서 삶의 적용으로 연결시킨다.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내용이지만 어린이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성이다. 솔직히 교리를 어린이에게 맞게 구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저자는 어린이에게 어렵지 않게 교리를 소개한다. 본서는 읽고 접어두는 책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사용할 수 있는 책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같이 교리여행을 본서와 같이 떠나보면 어떨까?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본서와 같이 교리를 탐구하면 어떨까?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의 명확한 체계인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면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 교회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가 교리교육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씨앗을 키워간다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될 것이다. 본서가 가정과 교회교육 현장에 적용됨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성탄과 성탄 즈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 성육신의 역사성과 독특성 강조

성육신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모든 사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성과 독특성에 대해서 강조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성육신이 다른 역사적 사실들과 같이 일어난 것으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리아에게 수태된 것의 역사성, 그 뒤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머니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나신 일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베레렘에서의 출산 등을 모두 역사적인 사실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이때 이와 함께 잘못된 정보가 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매우 애를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부모님과 교사들이 가르친 것 가운데 잘못된 요소가 있는 것을 알고 제대로 가르친 것까지를 의문시하도록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경건한 허구”를 섞어 가르치게 되면 후에 의심이 몰려 올 때 모든 것이 거부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1)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한 연대를 모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연대를 새롭게 기록해 보려던 (Scythia Minor 출신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우스(Dionysius Exiguus)가 로마에서 525년에 시작한 계산법에 착오가 부가되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연도를 BC 4년을 생각하지만, BC 6년,¹⁾ BC 7년, BC 12년이나²⁾ 심지어 18년까지를³⁾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정확한 연대도 모른다. 성경은 대강의 기간을 제시하고 있지 정확한 연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더구나 우리는 주께서 어느 날 탄생하셨는지 모른다.⁴⁾ 초기 기독교 역사가의 한

사람인 Sextus Julius Africanus (c. 180–c. 250)에 의해서 221년에 처음으로 (부정확하게) 예수 탄생 기념일로 언급된 12월 25일은 로마 교회에서 이교시절에 로마인들이 “패할 수 없는 태양의 탄생일”(Dies Natalis Solis Invicti, the birthday of the undefeated sun)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던⁵⁾ 태양신 축제(solar festival)를⁶⁾ 대신하여 “의의 태양”이 되신⁷⁾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그렇게 정하여⁸⁾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 온 것의 연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도로 말해도 어린 아이들에게라도 12월 25일에 예수님의 생일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⁹⁾

(3) 또한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한 천사 가브리엘(눅 1:26–38)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한 “주의 사자”(눅 2:9), 그리고 그 후에 그 천사와 같이 있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찬양한 수많은 천군들은(눅 2:13–14) 결국 여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며, 가브리엘의 이름이나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것임이 확실하다는 것과 특히 조작이나 이상 중에 나타난 경우가 아니라 천사가 직접 나타난 경우에는 날개를 달고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것에 유의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칼빈은 그렇다면 왜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이해력 정도에 맞추어 표현하면서 신속히 도울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고 잘 설명한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건전한 해석들에 근거한 사유를 하고 그런 가르침을 베풀어야 한다.

(4) 또한 천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선언을 듣고서 목자들이 와서 구유

에 누인 아기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눅 2:15–20)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찾아와 예물 드린 사건(마 2:1–12)은 시간적 거리를 지닌 사건임을¹¹⁾ 분명히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온 것인지를 성경이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숫자를 셋으로 강조하여 말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6세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방에서는 8세기에 상당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부가된 이름인 Caspar, Melchior, Barthasar 등의 이름을¹²⁾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¹³⁾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육신과 관련된 명확한 사실성을 분명히 하면서 가르치다가 초등부 고학년부터는 그 시기나 앞으로 다가오는 역사적 회의주의를 극복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에 울려 올 수 있는 회의를 미리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으며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그런 회의적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면서 그 역사성과 독특성을 미리 잘 가르쳐야 할 것이다.

2. 성육신의 종말론적 성격 가르치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성육신의 종말론적 성격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측면을 놓치는 것은 핵심을 빼는 것이며, 성육신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과 무대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구조가 상당히 다른데 익숙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육신의 종말론적 성격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교회 전체가 바른 성격적 가르침에 좀더 친숙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효과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가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적으로 성육신의 종말론적 성격을 언급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성자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어떻게 구약이 약속한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는 않지만 사실 마리아의 찬가(magnificat)에도 벌써 그런 의미의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돌아보심을 말하며(눅 1:48), 능하신 이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라고 말한다(눅 1:51-53). 이는 구약이 말하는 종말의 때에 여호와께서 하실 것으로 언급된 것들을 열거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찬가는 일종의 종말론적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찬송인 것이다. 또한 천사가 말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신 일에 대한 선언도(눅 2:10, 11) 결국 종말론적 메시아의 임함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결례의 날이 찬 40일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고 찬송한 시므온의 찬송에도(눅 2:30-31) 이런 종말론적 의식이 있다고 해야 한다. 또한 안나가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리라”고 할 때(눅 2:38) “예루살렘의 구속됨”이라는 말에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되는 것은 모두가 구약의 종말의 때가 이르렀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는 종말을 그 안에 가져오신 것이다. 따라서 종말론적 메시아로 오신 그 안에 있는 모든 날들은 이제 모두 다 종말론적인 날들이다.

3. 구속 사건의 토대로서 성육신의 의미 가르치기

그러나 그리스도(즉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고, 구속이 그 자체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가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즉 그가 성육신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일, 즉 구속의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육신은 그 자체가 모든 구속을 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구속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육신이 없이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육신은 구속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성육신이 없이는 구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인 것이다. 구약이 준비한 구속사적 사건을 마무리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의 하나인 것이다. 성육신에서 이점이 가르쳐 질 때에야 성육신과 구속의 정확한 관계가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 성육신에 비추어 본 기독교적 실재론 가르치기

성육신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몸을 모두 중요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며 강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의 빛에서 인간의 전체성, 즉 전인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기독교적 일원론의 의미를 잘 가르침 받고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사사를 얻을 수 있다.

기독교는 영혼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다. 몸을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여 천대하고 영혼만을 강조하던 영지주의(Gnosticism)는 오래 전에 비기독교적인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많은 교부들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항하여 싸웠다. 이처럼 성육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경우나 인간의 영혼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영혼 기독교에서 전인 기독교로의 전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몸과 영혼 모두를 귀하게 여기며, 영육이원론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는 영육이원론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이원론(dualism)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일원론(Monism)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기독교 일원론(Christian monism)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독교적 이원론(Christian dualism)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독교적 이원론은 상대적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몸과 영혼의 두 실체로 구성되었음을 말하면서도(온건한 이원론), 그러나 그 둘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거의 나뉘질 수 없음을 말

하는 “영육통일체”(psycho-somatic unity)를 강조하는 입장과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 실재이신데, 그가 자신 밖으로 이 세상을 자유롭게 창조하셔서 참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이중적 실재론(two-layer theory of reality)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어떤 종류의 만유재신론(pantheism)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원론적이나, 그래도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 영광만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적 일원론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내재를 온전히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초월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이원론적 일원론이 기독교적 실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제대로 가르쳐 질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온전한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성육신에 비추어 본 구속된 인간관 가르치기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빛에서 우리는 구속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찌그러버린 사람들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중생시키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속 해서 본받아 가고 따라 가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있다. 그러므로 성육신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를 따라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성을 가지셨음을 온전히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설교한 일이 있다:

그는 영처럼 나부끼지 않았으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그는 눈, 코, 입, 귀, 가슴, 배, 손, 발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젖을 빨았으며, 그의 모친은 다른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그를 양육하셨습니다.¹⁴⁾

이렇게 말할 때 루터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인성을 강조하는 말은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받아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는 것이다. 우리는 칼빈과 워필드와 도날드 맥클라우드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간 감정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하며,¹⁵⁾ 그의 이런 측면을 본받아 가도록 해야 한다.

구속된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하여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구속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어 그리스도적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간이다. 그런 뜻에서 구속된 인간은 별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다. 구속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다.

6. 성육신에 비추어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게 가르치기

마지막으로 성육신을 가르친 결과로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경배에로 나아가는 일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 경배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 그 지경의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였듯이,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였듯이,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난 후에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 그에게 경배하였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예배이다”고 말하는 맥클라우드 교수의 말은¹⁶⁾ 매우 옳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예배하고 그만 높이는 실질상의 성자 유니테리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¹⁷⁾ 삼위 일체 하나님께 대한 경배, 그리고 삼위 일체 하나님과 교제 하는 삶을 날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전반적 분위기를 볼 때 이렇게 (1)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터에서 예배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지, (2) 그 예배를 성자의 구속 공로에 의존하여 감당하려 하므로 실질상 성령님 안에서 의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3) 그렇게 중요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내신 지침에

따라서, 즉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¹⁸⁾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교육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온전한 예배로 나타나는가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1 누가복음 2:1-2의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된 해를 계산해서 주전 6년으로 계산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Cf. Bonnie Blackburn and Leofranc Holtorf-Strevens, *The Oxford Companion to the Year: An Exploration of Calendar Customs and Time-recko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reprinted & corrected, 2003), 776. 명확히 연도를 확정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누가 복음의 기록에 근거해서 주전 7-6년을 개연성 있는 연도로 제시하는 Robert H. Stein, 『메시아 예수』 (서울: NVP, 2001), 61도 보라.

2 이 두 가지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왕이 죽은 것은 주전 4년 유월절 바로 전으로 보는 데서 기원한다. 이에 대해서는 Blackburn and Holtorf-Strevens, *The Oxford Companion to the Year*, 770을 보라. 이와 관련하여 동방 박사들이 찾아 온 것을 주전 7년 9월 15일에 있었던 항성들의 직렬 배열로 보는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7년을 생각하며, 이를 할리 해성과 동일시하는 이들은 BC 12년을 생각하는 것이다. Cf. “Anno Domini,” available at: <http://en.wikipedia.org/wiki/AD>, accessed on 3 October, 2008. 후자에 대해서는 Stein, 『메시아 예수』, 63도 보라. 스타인 자신은 주전 5-7년으로 생각하면서 추론적 견해를 제시한다(59).

3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에 의존하여 이렇게 이른 연대를 제시하기도 한다고 한다. Cf. Blackburn and Holtorf-Strevens, *The Oxford Companion to the Year*, 776.

4 그러므로 언제 그가 탄생하셨는지를 추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Clement of Alexandria는 5월 20일을 그의 탄생일로 추론하여 언급했다고 한다. Cf. “Christma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280.

5 현대적으로 통지는 12월 21이나 22일 오지만 시저(Julius Caesar)가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을 도입한 BC 45년에는 로마인들이 Bruma라고 부르던 통지가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이었다고 한다. Cf. “Bergma,” available at: <http://www.cs.utk.edu/~mclennan/BA/SF/WinSol.html>, accessed on 3 October, 2008.

6 이것도 당시에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니었으니, 이를 도입한 황제가 엘라기발루스 황제(Emperor Elagabalus, 218-222)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전역에 확대되어 그 기념이 많은 일반화된 것은 아우렐리안 황제(270-74) 휘하에서라고 한다. Cf. “Sol,” *Encyclopædia Britannica* (Chicago, 2006).

7 이 때 많은 이들의 생각에 말라기 4:2 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을 말하는 요 1:9과 같은 구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8 12월 25일 지키는 것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으로는 Philocalian calendar에 336년 12월 25일을 “natus Christus in Betleem Judeae”로 언급한 것이 있다. 로마 주교 리베리우스에 의해 354년경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여턴 4세기 후반에 와서 일반적으로 이날이 지켜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Cf. “Christma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280. 또 다른 견해는 예수의 수태일이 3월 25일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9개월 후에 그리스도께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아 12월 25일을 기념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Cf. “Christmas,” available at: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115686/Christmas#tab=active-checked%20items-checked&title=Christmas%20-%2020Britannica%20Online%20Encyclopedia>, accessed on 3 October, 2008.

9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지키는 일에 대한 비판적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로 다음을 참조하라: Chris Durston, “Lords of Misrule: The Puritan War on Christmas 1642-60,” *History Today* 35/12 (December 1985): 7-14; 그리고 이승규, “조직신학에서 본 청교도 사상,”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서울: SFC, 2005), 131, n. 38에 언급된 글들을 보라. 미국 청교도들도 그런 태도를 취하여 1659-1681년에 보스턴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금해졌다고 한다. 이에 비해 청교도적 영향력이 덜했던 버지니아와 뉴욕 거주민들은 자유롭게 성탄절을 지켰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모라비안 교도들은 성탄절을 매우 열정적으로 지켰다고 한다. 독립 전쟁 전후에는 이것이 영국의 관습으로 여겨져서 무시되었다가 1820년대에 미국에서 성탄절 지키는 일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한다. Cf. http://en.wikipedia.org/wiki/Christmas#cite_ref-cinne_24-0, accessed on 3 October, 2008.

10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김홍진, 『성탄절 감실』 (서울: 성약, 1985)과 Stein, 『메시아 예수』, 59를 보라.

11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김홍진, 『성탄절 감실』 (서울: 성약, 1985)과 Stein, 『메시아 예수』, 59를 보라.

12 Cf. “The Biblical Magi,” available at: http://en.wikipedia.org/wiki/Biblical_magi, accessed on 4 October, 2008. 500년경 히람어로 작성된 연대기에서 처음으로 야구스도 통치 때에 1월 1일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고 하고 그 이름을 다음과 같이 기록 하고 있다고 한다: Bithisarea, Melchior and Gathaspa. (Excerpta Latina Barbari, page 51B).

13 이를 위해 이승규, “성령으로 일터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도신경』, 125-37을 보라.

14 Martin Luther, *Sermons on the Gospel of John*, in *Luther's Works*, vol. 22 (St. Louis: Concordia, 1957), 113.

15 Cf. John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Peter*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3), 55; idem,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vol. III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945), 227, 228, 230; B. B. Warfield,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0), 93; MacLeod, 230-42.

16 MacLeod, 『그리스도의 위격』, 356. 첫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17 이에 대한 간단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요약으로 이승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백,” 『사도신경』 (서울: SFC, 2008), 15-24를 보라.

18 이 점에 대해서는 이승규, “성경적 공예배를 지향하며,” 『한국 교회학 나아갈 길』 (서울: SFC, 2007): 39-71을 참조하라.



이중언어유·초·중·고등 교육기관, 기독교 고전교육



SICA 학생 모집

〈공개 입학설명회〉 일시: 12월 16일(수), 1월 20일(수) 오후 4시 / 장소: SICA

“교육이란 소중한 아이들의 인격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교육은 환경이며, 습관 그리고 훈련입니다. 방향 끝 철학이 빠진 교육은 방향키를 잃은 배처럼 표류하게 됩니다. 이제 정확한 방향키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중심(Christ Centered Classical Education)의 교육을 SICA에서 만나 보십시오.”



문법 단계(초등)

전 과목의 기초 개념과
자식 교육



논리 단계(중등)

문법 단계의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
논증, 변론을 통한 토론 교육



수사 단계(고등)

문법,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연설과 에세이 통합 교육

- SICA는 역사 중심으로 통합, 연결하는 커리큘럼으로 가르칩니다.
- SICA는 교과서를 넘어서는 살아있는 책으로 배웁니다.
- SICA는 국어, 천자문, 영어, 라틴어 교육을 통해 동서양의 언어 기초를 배웁니다.

〈SICA 기독교 고전교육 세미나〉

강의 1) 기독교 고전교육과 역사

강의 2) 역사 중심의 통합 교육

· 일 시 12/12(토) 9:30~12:00

· 장 소 SICA(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 강 사 김성규, 고지현, James McKinstry

· 대 상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등록비 사전등록 10,000원 / 현장등록 15,000원

02) 557-7710

www.sicakorea.org

서울 양재캠퍼스: 유·초·중등 / 여주캠퍼스: 고등(개교 예정)



다함께 부르는 메시아 Sing Along Messiah

서울모테트합창단

1989년 창단한 서울모테트합창단은 2014년 재단법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015년 창단 26년째를 맞이하는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순수하고 이상적인 합창음악의 실현'과 '교회음악의 바른 이상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민간 프로합창단이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지난 26년간 다양한 연주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와 음악문화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쳐왔으며 한국 합창음악과 음악계 전체에 미래를 향한 이상적인 모델로서 평가받아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05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음악부문 대통령상)수상, 2011년 '대원음악상'(대원문화재단)수상, 2014년 '공연예술상'(공연예술경영인협회)등을 수상한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이다.


'자연스러운 발성과 풍부한 배음, 환상적인 하모니로 대변되는 서울모테트합창단의 맑고 깊은 울림은 듣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합창단의 고결하고 순수한 정신까지 느끼게 한다.' '파트 간에 균형과 조화, 단원들의 일체감 넘치는 리듬과 감정의 표출은 합창단의 풍부한 음악성과 지휘자와 모든 단원이 합창단의 정신과 음악적 이상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는

*국내 유일의 민간 프로합창단으로 26년간
한국의 합창음악 발전을 선도해오고
한국 음악계에 미래를 향한 이상적 모델 역할을
해 온 서울모테트합창단의 제100회 정기연주회인
"2015 Sing Along Messiah (다함께 부르는 메시아)"
를 소개합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온 서울모테트합창단은 2013년 9월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와 함께 내한한 바흐 음악의 거장 헬무트 릴링(H. Rilling)으로부터 협연 후 “평생 동안 전 세계 수많은 합창단들과 연주를 해 보았지만 서울모테트합창단과 같이 바흐 음악을 잘 이해하고 독일어 뉘앙스와 표현의 문제를 훌륭히 소화해내는 합창단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찬사를 받았다. 올해 4월 헬무트 릴링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저명한 바흐페스티벌인 2015 Thüringer Bachwochen(튀링엔바흐페스티벌)에 합창단이 초청되어 연주를 하였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 로알론베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지휘/이반피사)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협연했다.

2015 Sing Along Messiah (다함께 부르는 메시아)

1989년 창단 이후 26년간 꾸준한 활동으로 “제100회 정기연주회”를 맞이한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지난 10년간 연말 기획 연주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아온 ‘Sing Along Messiah’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갖고자 한다. Sing Along Messiah는 관객들이 메시아 악보를 가지고 파트별로 구분된 좌석에서 합창단과 함께 합창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음악공연이다. 곡 중 솔로곡은 독창자들의 노래를 관객의 입장에서 감상하고 합창곡은 연주자가 되어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2시간의 공연을 함께 꾸며가는 연주회이다. 가장 훌륭한 음악역사 유산이며 가장 활발하게 연주되는 클래식 레퍼토리 중 하나인 헨델의 메시아를 관객과 함께 연주함으로써 연주자와 관객, 무대와 객석간의 벽이 허물어짐과 동시에 화해와 연합,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송년의 의미를 깊은 감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열린 음악회가 될 것이다. 2005년 우리나라 최초로 듣는 공연이 아니라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으로 시도하여 클래식 공연문화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올해로 11번째 연주되는 Sing Along Messiah는 그동안 수많은 관객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 서울뿐만 아니라 2008년 대구수성아트피아 초청, 2011년 제주문예회관 초청, 2012년 전남 강진문화회관 초청, 2014년 통영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공연문화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가고 있는 Sing Along Messiah는 그동안 많은 연주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자신들만의 뚜렷한 색깔을 얻게 된 서울모테트합창단의 제100회 정기연주회로 관객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고자 한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2015년 12월 14일 (월) 오후7시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00회 정기연주회 ‘Sing Along Messiah’(다함께 부르는 메시아)를 연주한다. 

티켓 및 공연문의

유의사항

티켓은 Sing along석(구입시 노래할 파트별로 티켓을 구입해야함)과 일반관객석으로 구분하여 판매합니다. 연주당일 사용할 악보는 예술출판사(박치용 역)에서 나온 메시아책을 사용하며 시내유명서점과 당일 현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 Sing along석(관객참여석) : Sop.석 2만원 / Alto석 2만원 / Ten.석 2만원 / Bass석 2만원
- 일반관객석 : R석 10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 C석 1만원

공연문의 및 예매

서울모테트합창단 02)579-7294~5 www.seoulmotel.com
 SACT티켓 580-1300 www.sacticket.co.kr
 인터파크티켓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옥션티켓 1566-1369 ticket.auction.co.kr
 YES24티켓 1544-6399 ticket.yes24.com
 나눔티켓 760-4766 www.nanumticket.or.kr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능

※본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공연입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10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1,360,000	인건비	일반급여	3,600,000
	임원회비	570,000		기타급여	328,250
	일반회비	5,747,500		소계	3,928,250
	기관후원금	4,3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701,500		사무실관리비	399,000
	학술지원금	1,000,000		통신비	332,430
	CTC후원금	310,000		우편료	220,720
	기타후원금	1,000,000		소모품비	688,300
				비품	42,360
				식비	350,560
		복리후생비		837,440	
		퇴직연금		309,250	
		회계용역비		110,000	
		교육비	40,000		
		기타	288,253		
		소계	4,168,313		
			연구지원비	학술지원금	1,000,000
				CTC후원금	318,900
				VIEW후원금	7,391,204
				소계	8,710,104
	소계	15,039,000			
기타수입	예수금	349,39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기타수입	4,500		발송비	1,206,100
				소계	3,706,100
				기타	세금
			기타		500
			소계		180,070
	소계	353,89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60,00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행사준비	17,570
	세계관기타수입	0		세계관기타	500
	소계	60,000		소계	18,07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자료제작비	759,000
	학회기타수입	500,000		학회홍보및기타	598,590
	학술지심사비	630,000		학술지 인쇄비	3,300,000
	학술지게재료	0		학술지발송비	778,190
	자료집판매	0		학술지심사료	620,000
	저작권료	0		학회기타	640,000
	소계	1,230,000		소계	6,695,780
당월 수입액	16,682,890	당월 지출액	27,226,617		
전월 이월액	50,804,952	차월 이월액	40,261,225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10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00,000
				기타급여	0
				소계	1,9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1,056,000	
		인쇄비		2,513,060	
		소계		4,029,060	
	소계	550,0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경상비	복리후생비	299,080
	예수금	165,560		퇴직연금	146,130
				소모품비	11,100
				관리비	110,000
				회계용역비	110,000
				식비	51,500
				소계	727,810
			기타	세금	124,650
				기타	1,500
				소계	126,150
	소계	2,665,56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기타수입	5,820,00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행사준비	921,960
	미디어장학등록	0		미디어식비	22,700
	소계	0		소계	944,660
당월 수입액	9,035,560	당월 지출액	7,727,680		
전월 이월액	34,557,336	차월 이월액	35,865,216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고은, 김봉현, 김셋별, 김셋별, 김성욱, 김영주, 김장원, 김진호, 김태영, 김형근, 김희원, 박시라, 박상희, 박원근, 박지민, 생명의강, 성관수, 안용주, 영음사, 유성욱, 장재수, 정세태, 정필규,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일,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공승근, 구성태,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방민, 김성은, 김성찬, 김영윤, 김은경, 김정영, 김재우, 김태영, 김태윤, 김현아, 김현경, 김해찬, 노승욱, 박광재, 박상규, 박승룡, 박찬규, 배도환, 범경철, 서영호,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호록, 신기혁, 심정화, 안성희, 우수민, 유종렬, 윤경숙, 윤종선, 유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민, 이영훈, 이인수, 이항숙, 임소연, 임천석, 임형준, 임호숙, 장한일, 전광학, 전정진, 전종규, 정봉현, 정한규, 조사무열,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화, 최영대,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김경희 7천5백 강찬진, 고상선, 김나실, 김성욱, 김은민, 김재우, 박현빈, 방성기, 안상혁, 이남철, 이세호, 이은수, 이지는, 전영식, 정요한, 정원길, 정찬주, 진영규, 최경복 1만 David Han, Lee chun hee suk, 가월현, 강동진, 강민창, 강석현,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은주, 김해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훈, 고연경, 고재호, 박은이, 박정민, 구준희, 권경호, 권민아, 권순범, 김원명,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은,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일, 김남진, 김동준, 김동찬, 김동환, 김막미, 김미혜, 김민성, 김병식, 김병국, 김보경, 김봉태, 김성범, 김성경, 김성규, 김성민, 김성진, 김세영, 김세연, 김세환, 김세준, 김소라, 김수진, 김승호, 김아람, 김아론, 김양호, 김영숙, 김영호, 김요한, 김용석,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정,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정, 김장모, 김장일, 김장호, 김정진, 김정호, 김경화, 김중국, 김주영, 김중훈, 김자민, 김진성, 김진아, 김장현, 김철수, 김태훈, 김태호, 김판일, 김희, 김현정, 김형길, 김혜정, 김홍선, 김홍제, 김효석,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노아름, 노주하, 리영환, 류지호, 류형모, 마민호, 모상근, 문재환, 박경원, 박계호, 박기연, 박능안, 박두선, 박두한, 박복애, 박상호, 박성진, 박승호, 박시은, 박용성, 박원근, 박은영, 박은주, 박종국,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지현, 박지희, 박진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희주, 방승미, 배세진, 배세원, 배아론, 배인교, 배지연, 배효진, 백경은, 백은석, 백현준, 변영성, 변희지,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사정연, 서화진, 서광원, 소중화, 송영규, 손하은, 손현탁, 송대영, 송중철, 송철호, 송태상, 송태현,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현, 신성자, 신지영, 신진선, 신진웅, 신현정, 신현주, 신형근, 신호기, 신호영, 심명섭, 심재훈, 안남주, 안병열, 안 석, 안영희, 안용준, 양성근, 양행태,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해민, 오경욱, 오성호, 오지수, 옥재호,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기남,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선덕,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익신, 유지환, 유창은, 유화연, 유희진, 윤경수, 윤명식, 윤상현, 윤숙자, 윤천석, 이갑두, 이 강, 이경숙, 이경연, 이경직, 이계삼, 이관철, 이규현, 이기서, 이기섭, 이기훈, 이길형, 이동훈,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진, 이명원, 이병수, 이병주, 이병준, 이상근, 이상기, 이상무, 이상수, 이상찬, 이상환, 이선복, 이상수, 이수연, 이승연, 이승호,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의, 이요한, 이윤훈, 이원배,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종국, 이종철, 이종혁, 이종환, 이준성, 이지수,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종원, 이희리,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민, 임미림, 임소현, 임수연, 임우진, 임윤택,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정경근, 정동진, 정승기, 정승재, 정승화, 정욱경, 정용훈, 정은혜(양종태), 정인숙, 정진수, 정창수, 정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종화, 전찬양, 정경식, 정동섭,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정희원, 정영민, 조경덕, 조미연, 조백희, 조성은, 조성희, 조용배, 조용현, 조은국, 조은수,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하람, 조현용, 조혜경, 조혜진,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장규, 최삼열, 최상두, 최성호, 최재진, 최승호, 최 연, 최영수, 최은영, 최준빈, 최진우, 최한빈, 최현식, 최현정, 최해경, 추진연, 태명숙, 하상민, 하진호, 하진희, 한미영, 한혜선, 한희수, 허 연, 허찬영, 허 현, 현근성, 현하나, 홍경화, 홍규호, 홍대화, 홍선호, 홍세기, 홍양희, 홍정석, 홍준호, 황기철, 황도용, 황세환, 황익서, 황인경, 황태연, 황성호, 황해정 1만5백 김태우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이신열, 정상섭, 조영숙, 최동원 2만 강대훈, 강용란, 김명욱, 김용식, 김민수, 김정호, 노용현, 박해경, 배성민, 변우진, 빛과소금교회, 석지원, 손하나, 우시정, 이 건, 이길구, 이명희, 이만아, 이진희, 임 영, 정문선, 조창근, 한인관, 한진영, 한희진 2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수홍, 김영연, 김일, 문석윤,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오익석, 오하나, 우병호, 이예진, 이은실, 임하옥, 장수영, 최용준, 추태화, 황상신, 황정진 5만 김민철, 김성택, 김성민, 김시호, 서진희, 송봉호, 신득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태, 조상태, 최한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김지원 7만 류은정, 최태연 8만 권정아 10만 김이원, 김태환, 박상은, 손영옥, 송인규, 양인명, 윤완철, 전광식 12만 조한근, 황정자 21만 정영록 30만 김승욱 40만 김원수 100만 권성윤

계 9,689,00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글로벌한가족교회, 다은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마포중앙교회, 부천침빛교회, 세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횡동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전 130만 주님의십자가교회

계 5,350,000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흥성사, DCTV, 오후우스코리아, IVP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TC 기독교세계관 교육강좌]

12/8(화), 다음세대 키우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CTC 기독교세계관 교육강좌 “철학자, 손봉호 교수에게 듣는 다음세대 키우기”가 삼일교회 C관 2층에서 12월 8일 저녁에 있습니다.

- 강사 손봉호 (본 동역회 이사장, 고신대 석좌교수)
- 주제 다음세대 키우기
- 일시 12월 8일(화) 저녁 7시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4호선 숙명여대역 인근)
- 수강료 1만원
- 문의 안성희 실장(010-2792-5691)

[정기총회 공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 공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실시합니다. 한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신년의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시어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6년 1월 25일(월)
- 장소 별도공지

[공동주최] 기독교세계관 학교

한국 라브리 공동체와 함께 기독교세계관 강좌를 준비합니다. 지난 11월 16일의 사역자 대상 강좌에 이어 기독교세계관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2016년의 시작을 3일 동안 진행되는 강좌로 만나요.

- 주제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로 보기
- 일시 2016년 1월 28일(목)~30일(토), 3일간
-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 강사 성인경, 황성주, 김승욱, 우종학 외
- 회비 전체일정참가 7만원 (중식 2회 제공)
저녁일정참가 2만원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 문의 동역회 <http://www.worldview.or.kr/>
라브리 <http://www.labri.kr/>
(카카오톡ID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카카오톡 ·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검색하세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친구찾기’ → 검색 : (ID)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친구추가, 채팅창 이용

■ 페이스북

‘친구찾기’ → 검색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좋아요’ 누르기, 팔로우!

[신규 모임] 월드뷰리더(Reader) 공고

함께 모여 (월드뷰)를 읽는 리더Reader 모임을 시작합니다. 혼자만 읽기 아쉬웠던 분들, 혹은 나누고 싶었지만 나눌 이가 없던 분들 함께 모입니다. 신년에 그 첫모임, 사당역(2,4호선)에서 마음 편히 모여봐요.

- 일시 2016년 1월 7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와우카페 (사당역 인근)
- 문의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담당 : 김고운 간사)

[대학원생 모임]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공고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이번 달에는 학회로 대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 일시 12월 4일(금), 저녁 7시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 (숙명여대역 인근)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문의 02-754-8004

**[영상자료]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융·복합과 기독교학문' 기초강연**

지난 11월 7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제32회 기독교학문 학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융·복합과 기독교학문'을 주제로 진행된 각 영역별 패널 발제 및 토론의 영상자료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영상자료] 추계인문아카데미CHA

지난 10월부터 4주간 진행된 추계인문아카데미(한국기독교철학회 주관) '기독교인문학, 한국 교회를 진단하다'에서 실시한 김형석(연세대 명예교수),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세계관동역회 이사장)의 강좌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연1. 역사 안의 그리스도 : 역사적으로 본 기독교 _김형석 명예교수(연세대)

강연2. 인간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 _김형석 명예교수(연세대)

강연3. 기독교와 윤리 _손봉호 명예교수(서울대)

강연4. 문화상대주의와 기독교 _손봉호 명예교수(서울대)

1	인문아카데미 영상 오픈(홈페이지)
2	
3	
4	대학원생 모임
5	국민일보 와이드먼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6	
7	
8	(CTC주최강의) 손봉호 교수의 "다음세대 키우기"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27	
28	
29	
30	월드뷰 2016년 1월호 발행
31	신앙과 학문 20권 4호 발행



정말 빠르네!

아이 셋이 서로 자기 아버지가 더 빠르다고 자랑했다.

아이 1: “우리 아빠는 양궁 선수데 활을 쏘고는 화살보다 먼저 과녁에 갈 수 있어.”

아이 2: “우리 아빠는 사냥꾼인데, 노루를 향해 총을 쏘고는 노루가 총에 맞기 전에 노루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

아이 3: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공무원인데, 오후 6시에 퇴근하면 5시 반에 이미 집에 계셔!”

아이 1과 2: “야 빠르다. 출근도 그렇게 빨리 하시니?”

아이 3: “출근은 더 빨리 하셔. 9시가 출근시간인데 우리 아빠는 그 전날 10시에 사무실에 도착하셔!” ☺

나름 다음 다음

여고 시절, 다른 중학교에서 진학한 나의 첫 체력장. 상당히 불필요한 설명이지만, 평균 신장 이상인 키에 골격이 좋아 운동 꽤나 할 것 같은 나는 어려서부터 반이 바뀔 때마다 계주에 자주 지목당했었다. 이내 망신당하기 일쑤였지만 처음보는 아이들이 그걸 어찌 알랴.

고교 생활 처음이기도 하고 친구들을 한둘 사귀는 무렵이었기도 했고, 체력장 성적이 입시에 반영된다는 협박도 있어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다. 100m 달리는 두 명씩 짝을 지어 달리는데 키가 비슷한 내 짝공이 달리기를 잘한다는 소릴 들었다. 평균 기록에 못미치는 나는 상대가 잘한다는 소릴 듣고난 후라 심적 부담이 컸는지, 출발부터 늦어지더니 멀어진 거리만큼 발이 점점 무거워졌다. 호루라기 소리부터 멀리 달아나는 짝공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뛰는 내내 점점 더 달리기 싫어지고, 난 지금 뭐하는지, 왜 그럴까 자책하며 저 멀리 보이는 체육 선생님의 표정에서 뭉미*를 읽고, 고작 1분 채 안되는 그 짧은 시간을 긴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시공의 차이와 인생의 허무함까지 가득 안은 채 무려 반에서 최고의 기록, 전교에서 두 번째 느린 기록을 세웠다.

상대가 잘하는 걸 알고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경기는 그렇다.

남보다 나아지는 것이 목표이면 차이와 승패만 보이고, 쉽게 지치고 존재의 이유까지 흔들린다.

결국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그 무엇이 되기 십상이다.

인생이 그렇다.

타인이 잘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괜히 비교하여 어떻게든 나도 그만큼은 해보리라 시도하는 것은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다. 타인보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더 큰 생채기를 남긴다.

‘나 나름’이라는 말이 이럴 때 힘을 발휘했으면 한다.

각자의 고유한 성격, 기질,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있다. 스타일과 패션이라는 말에 국한되지 않는 이 ‘나름’의 미학을 자기 스스로가 가장 연약할 때 반추한다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견디어 내고 살아갈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압구정의 똑같은 얼굴과 다른 나름의 삶, 사회의 흐름과는 다른 나라의 사람의 격 있는 삶,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인정한

나다운 삶, 세상과 상황이 막막하다해도 그 속에서도 나름의 운치를 찾을 줄 아는 삶,

그 한 가닥을 잡고 살아 내는 나름들이 모인다면

나름, 살만한 세상도 언젠가 오지 않을까.

100
 서울모테트합창단
 제100회 정기연주회

Handel's
MESSIAH
 2015 Sing Along

G. F. Händel The Messiah HWV56

다함께 부르는 메시아



소프라노 강혜정



알토 양승미



테너 최상호



베이스 정목기



합창 Alte Musik Seoul



지휘 박치용

2015.12.14 (월)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및 주관 서울모테트합창단 후원 후원 한국국립극단 한국국립교향악단 국립현악합주단 기별명원 DAECHANG Teasahn Space LG엔터테인먼트

공연문의 및 예매 서울모테트합창단 02-579-7294/5 www.seoulmotet.com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능)
 티켓 •Sing along석(관객참여석) : Sop.석 2만원 | Alto석 2만원 | Ten.석 2만원 | Bass석 2만원 •일반관객석 R석 10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SAC™Ticket 02-580-1300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AUCTION 티켓 1566-1369 | YES24.com 공연 1544-6399 | YES24 02-760-4766
 * 본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연디딤 1+1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공연입니다. (예매처 인스타그램 141 티켓예매) *